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세계민요 분석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강 은 경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세계민요 분석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강 은 경

# 인 준 서

강은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이 인 식 

심사위원 현 경 실 

심사위원 김 미 숙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이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음악과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하여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의 음악으로 세계민요를 수록하고 있는지, 세계민요의 학습활동이 그 시대와 나라·민족의 문화를 반영하여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이해력을 신장시키는 다문화 음악교육에 적합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민요를 대륙 및 국가와 악곡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전체곡과 세계민요곡의 제재곡과 참고곡 비율을 분석한 뒤,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학습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민요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를 통해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의 아시아민요가 다문화 음악교육에 타당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7학년 활동영역 내용에서 명시한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대로 세계민요 대부분의 곡이 아시아민요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역과 악곡의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아시아민요는 모두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 실려 있는데 반해 각 교과서마다 주로 1, 2곡씩 실려 있는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민요는 모두 다 세계민요 학습활동과 관련 없는 단원에서 제시되었다.

셋째,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곡의 비율은 범문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성안당> (주)금성출판사> 현대음악> 도서출판 태성> 더 텍스트> 세광음악출판사 순으로 나타났다. 범문사는 2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세광음악출판사는 10.6%의 가장 낮은 비율로 세계민요가 수록되어 있었다.

넷째, 전체곡과 세계민요곡의 제재곡과 참고곡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곡의 제재곡 비율보다 세계민요곡의 제재곡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세계민요곡을 학습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세계민요 학습활동의 대부분이 가창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세계민요의 가창활동 비중은 전체곡의 가창활동 비중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8종교과서에 수록된 53곡의 아시아민요 중 30곡에 원어가사 제시되어 있었지만 원어로 직접 노래 부르는 학습활동은 6곡뿐이었다. 또한 더 텍스트, 도서출판 태성,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법문사, 성안당은 특별한 학습활동 없이 단순히 제재곡만 제시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깊이 있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세계민요의 대륙별 다양성만이 아니라 대륙별 분류 안에서의 국가별 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하며, 악곡의 차별화와 다양성 역시 필요하다. 교사는 교과서의 부족한 내용을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고 철저한 수업계획과 학습자료로 보완하여야 하고, 세계민요의 학습활동이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영역으로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 과목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좀 더 다양한 문화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이 되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에게 다문화 음악교육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3. 선행연구 .....	5
II. 이론적 배경 .....	10
1. 음악과 문화와의 관계 .....	10
2. 종족음악학 .....	11
3.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	14
4.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	20
III. 중학교 교과서의 세계민요 분석 .....	29
1. 세계민요 분석을 위한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 .....	29
2. 8종 교과서의 세계민요 분석 .....	35
3.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민요 학습활동 .....	50
4. 아시아민요 학습활동의 다문화반영여부 분석 .....	58
5. 아시아민요 학습활동의 다문화반영여부 분석 결과 .....	82
IV. 결론 .....	98

## 참 고 문 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1〉 연구대상 교과서 목록 .....	5
〈표-2〉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 급별 변화 추이 .....	18
〈표-3〉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	18
〈표-4〉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급별 변화 추이 .....	19
〈표-5〉 David B. Williams의 초등학교 음악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민족, 민속음악 선별에 관한 네 가지 접근 방법 .....	21
〈표-6〉 David J. Elliot의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개념 .....	21
〈표-7〉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서의 세계민요 학습 .....	31
〈표-8〉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분석 관련 내용 .....	32
〈표-9〉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7학년의 학년별 내용과 다문화 관련 내용 적용 .....	33
〈표-10〉 아시아민요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 .....	34
〈표-11〉 세계민요의 지역별 분류 .....	35
〈표-12〉 아시아의 지역별 악곡 수 .....	37
〈표-13〉 세계민요의 악곡별 수 .....	38
〈표-14〉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의 악곡 수 .....	43
〈표-15〉 제재곡과 참고곡의 악곡 수 .....	44
〈표-16〉 활동영역별 악곡 수 .....	46
〈표-17〉 아시아민요 분석기준표에 의한 분석 내용 .....	58

## 악보목차

<악보-1> 소년 한스 .....	23
<악보-2> 노래는 즐겁다 .....	2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과 여러 이동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세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지구촌시대, 세계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정보화, 사이버 문화의 확대, 대중매체의 발달과 문화의 대중화 현상으로 체험하는 문화는 더욱 방대해졌고, 전 세계의 정보와 문화를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나는 세계인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국적과 민족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문화의 가치가 점점 더 부각됨으로서 정치·경제력 못지않게 문화 경쟁력 또한 중요시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만을 외치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넘어선 ‘한국 속의 세계’인 세계지역화(glocalization)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산업연수제도로 산업체를 비롯한 여러 교육 기관과 기업체 등에서 외국인들이 활동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단일민족·단일문화이던 한국이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sup>1)</sup>은 110만 명으로 이는 한국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sup>2)</sup> 유럽 사회에서 인종

1)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그 자녀

2) <http://www.mopas.go.kr/>.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 전년도 대비 24% 증가”. 행정

관련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한 시점은 이주민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에 도달했을 때부터이고, OECD에서는 이주민의 비율이 5% 이상이 되면 이민 국가로 지정한다.<sup>3)</sup>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단일 민족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없고, 서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과 앞으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의 나라인 캐나다, 미국 등의 나라와는 달리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전통적인 국민 국가였던 한국은 국제결혼,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에 따라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낯선 문화,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는 다른 민족, 문화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다문화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서의 세계화 전략뿐만 아니라 인류애 사상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인 다문화주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 음악은 훌륭한 도구이다. 음악은 시대나 문화권에 관계없이 인간 생활의 보편적 현상인 동시에 한 지역이나 공동체의 특징적인 정신과 느낌을 담고 있는 예술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는 개인의 느낌과 삶의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와 문화에서 나타나는 소통적 도구로서, 개인으로부터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직접적 ·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sup>5)</sup> 즉, 인간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의미를 표현하고, 이를 세대를 이어 전수하는 수단이 된다.<sup>6)</sup>

---

안전부 보도자료, 2009. 8. 5.

3) 윤희원 외 5인. 2008.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쪽

4)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광주: 한울사. 146쪽.

5) 민경훈 외 11명.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50쪽.

이러한 음악 중에서도 민요는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전통을 이어 내려오는 음악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연속성을 지니며, 그 민족의 기본적인 음악성, 사상, 언어, 종교, 삶의 방식 등의 특성과 정서를 알 수 있는 장르이므로 다문화 교육에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음악을 통해, 특히 민요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sup>7)</sup>에 중심을 두고 있고,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경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sup>8)</sup>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으로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제공하여 보다 진보적인 다문화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 고전음악, 국악 등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을 수록하고는 있지만, 민족음악인 민요는 서유럽 국가의 민요에, 종교음악은 기독교 음악이 대부분을 이루는 편중현상으로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그 내용이 미흡함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편중현상 외에도 세계민요의 학습활동에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여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어, 이를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여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2009년 개정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세계민요가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대로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의 음악으로 세계민요를 수록하고 있는지, 세계민요의 학습활동이 그 시대와 나라, 민족의 문화를 반

---

6) 교육과학기술부. 상계서. 123쪽.

7)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총론, 특별 활동. 광주: 한솔사. 108쪽.

8) 교육과학기술부. 전계서. 134쪽.

영하여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이해력을 신장시키는 다문화 음악 교육에 적합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데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음악과 문화의 관계와 종족음악학,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에 대한 정의와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또한 중학교 1학년 8종 교과서에서 수록된 세계민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세계민요가 다양한 나라·민족·문화의 음악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대륙별·악곡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세계민요를 얼마나 수록하고 있는지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의 비율을 알아본 후, 세계민요의 제재곡, 참고곡의 비율과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학습영역별 비율을 분석해 본다. 또한 교과서에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 실려 있는 아시아민요를 분석하기 위해,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분석기준인 <표-10, 아시아민요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아시아민요 학습활동이 다문화 음악교육에 타당하도록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해 본다.

연구의 범위는 <표-1>과 같이 2011년 중학교 2학년의 음악교과서로 채택되어 1학년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앞으로 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8개 출판사인 더텍스트, 도서출판대성,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음악과 교과서 8권을 대상으로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제재곡과 참고곡 중 우리나라 민요를 제외한 세계민요의 제재곡과 참고곡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데 제한을 둔다.

<표-1> 연구대상 교과서 목록

출판사	학년	저자
더텍스트	1	김미숙, 임강은, 이호경, 김혜선
도서출판 태성	1	주대창, 정은경, 노혜정, 김동수
(주)금성출판사	1	양종모, 우광혁, 신현남, 윤성원, 김한순, 독고현
(주)미래엔 킷처그룹	1	장기범, 송무경, 임원수, 김유경, 김경태
법문사	1	김정숙, 이성율, 지종문, 정원경
성안당	1	정옥희, 이내선, 이희종, 박은정, 설창환, 이현창
세광음악출판사	1	허화병, 이희원, 오병태, 장주연
현대음악	1	윤경미, 장보윤, 곽은순, 곽성원

※ 교과서는 가, 나, 다 순으로 제시하였다.

### 3. 선행연구

박미경은 「세계음악연구와 교육의 기반조성연구」에서 세계음악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음악의 총칭”으로, 문화다양성의 시대인 21세기에는 세계음악문화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세계음악은 서양음악과 국악이라는 이분법의 틀 안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

어, 세계음악교육을 통해 세계음악의 본 모습을 보는 눈을 찾아 세계와 세계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음악연구와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음악관련 학회들의 활성화와 대학과 대학원에서 종족음악학 전공 개설,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세계음악연구 커리큘럼 개발, 세계음악연구자·교육자와 행정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방향과 내용의 정립, 교양교육으로서 세계음악의 가치정립, 세계음악의 교육자료 축적과 교사재교육 등을 통한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sup>9)</sup>

최은영은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분석」에서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의 개념·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다문화주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후, 민족음악, 종교음악, 대중음악, 시대별로 구분하여 중학교 음악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중음악과 다양한 시대의 음악 반영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족음악은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민요가 거의 수록되지 않았고,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은 각각 서유럽 지역의 민요와 북아메리카 지역인 미국의 민요로 집중되어있어 중남미와 캐나다, 동유럽과 북유럽의 민요도 많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종교음악은 대부분 기독교 음악으로 나타나 편중된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sup>10)</sup>

조현진의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실태 분석연구」에서도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외국 민요의 반영은 이루어졌지만 유럽의 민요 59.4%, 아메리카의 민요가 19.7%로 실려 있어 특정 지역 및 국가의 편중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 민요가 제재곡으

---

9) 박미경. 2002. “세계음악연구와 교육의 기반조성연구”. 「음악과 문화」 제 6호. 대구: 세계음악학회. 9-27쪽.

10) 최은영. 2005.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분석. 석사학위논문. 목포: 목포대학교육대학원. 40-41쪽.

로 다루어지는 비율이 전체 악곡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이는 학생들이 특정 지역, 국가만을 이해하며 편협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왜곡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요 대부분의 학습목표, 학습활동, 학습평가가 다문화주의 내용과 연관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해당 악곡에 있어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학습 목표 · 학습활동 · 학습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학습 목표 · 학습활동 · 학습평가의 세 가지 학습 과정간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외국인요 악곡을 통해 다문화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학습방안과 내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sup>11)</sup>

이지선과 조효임은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월드 뮤직의 수용과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초 · 중등학교 현장실태 및 교사들의 다문화주의적 의식과 태도에 대하여 조사 ·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월드뮤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교사의 56.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접 청취해본 경험은 46.2%로 나타나, 교사의 약 반수만이 월드뮤직의 용어인식과 청취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의 교사는 학교교육에서의 월드뮤직 수용이 필요함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타 지역문화의 이해를 높인다’라는 대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생활음악과 교실음악 간극축소’, ‘음악적 창의성 개발에 도움’, ‘세계화된 한국음악 문화발전에 도움’, ‘우리 음악을 새롭게 계승할 수 있는 안목확장’, ‘선율구도, 음악어법, 악기이해에 도움’ 순으로 응답하였다.

---

11) 조현진. 2008.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실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45-46쪽.

이처럼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절대다수의 교사가 인식하고 있었지만, 76%의 교사들이 다문화적 음악교육이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행 음악교과서에 월드뮤직의 수용과 다문화적 음악교육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다문화적 음악교육을 실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다문화적 음악교육에 대한 자료 부족’을 꼽았다. 즉, 학교교육에서 월드뮤직의 수용과 다문화적 음악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자신의 의식보다 교육환경이나 제도적인 측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sup>12)</sup>

선행연구를 조사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세계민요 연구의 대부분이 다문화를 위한 교과서 분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세계민요를 지역별로 분류하거나, 세계민요가 몇 곡이 수록되어 있는지 수치만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를 위한 세계민요의 학습활동을 분석한 연구라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물론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악곡을 수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별 분류나 수록된 세계민요의 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세계민요가 다문화 교육에 적합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분명히 과거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었던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에 대해 언급하며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과서 내의 다문화적 요소의 반영은 모든 교과서에 걸쳐 고르지 않고, 수록곡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세계민요가 수록되어 있더라도 단순히 부르거나 소개하는 정

---

12) 이지선, 조효임. 2004. “월드뮤직의 수용과 다문화적 음악교육에 관한 초·중등교사의 의식연구”. 한국음악연구. 제 35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263-266쪽.

도로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의 모델과 관련 자료의 부재, 수업 방식에 대한 막막함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정한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음악수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9년 개정 음악교과서의 세계민요 학습활동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한 문제점과 보완점을 고찰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제공하는 보다 진보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음악과 문화와의 관계

음악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인류사의 태고 적에도 음악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음악은 인간이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일상적인 의식(결혼식, 장례식, 축하행사 등)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음악을 활용하거나 즐기게 되고,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연극, 무용 등의 예술 분야에서, 그리고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높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듯 음악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 기여하며, 인간의 활동 및 산물인 예술로서의 음악이 인간의 생활과 떨어져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sup>13)</sup>

하지만 형식주의(Formalism)에서는 음악 외적인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음악의 형식 및 구성 요소와 내적 구조만을 음악의 본질로 보아 그것이 음악의 전부인 양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형식주의 미학 이론은 서양의 절대 음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된 유럽의 18-19세기 미학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 외의 서양음악과 비서구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이 전승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통음악, 현대의 다양한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실용적 음악의 가치를 설명하지 못한다.<sup>14)</sup>

---

13) 권덕원 외 3명. 2006.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47-48쪽.

서양의 절대음악이 보다 우주적이고 항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Elliott은 “사과가 오렌지보다 좋은지 아닌지 논쟁하는 것이 비논리적인 것과 같이, 슈베르트 음악이 블루스(blues)나 인도 음악보다 좋은지 아닌지 논쟁하는 것도 비논리적이다”라고 하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음악을 비교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음악을 그 사회와 문화적 맥락 안에서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곧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음악성을 발달시켜 나갈 때 나중에는 결국 다른 음악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음악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Elliott에게 있어서 음악의 개념은 “이 세계에는 다양한 음악이 존재하며, 그 각각의 음악은 각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 위에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있다. 이는 음악 문화에서 맥락의 중요성, 그리고 비서구 음악의 본질적인 가치 재발견 등의 측면에서 현대 음악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 2. 종족음악학

음악을 전통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을 전제로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 종족음악학(ethnomusicology)이다. 종족음악학의 단어적 의미는 종족적 관점에서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여러 종족들의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분야의 연구 주제들이 ‘종족’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의 모든 음악을 다루며 ‘음악과 문화’ 또는 ‘음악과

---

14) 상계서. 61-63쪽.

15) 상계서. 79-81쪽.

인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종족음악학은 한편으로 전통음악의 연구를 방법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리에게 낯선 음악을 연구하도록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모든 음악의 문화 관련성을 밝히는 과제를 갖는 것이다.<sup>16)</sup>

즉, 종족음악학은 '문화에 있어서의 음악에 관한 연구'로 음악에는 사회의 조직이 반영되어 있고, 문화의 다른 요소들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언어적, 종교적인 요소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로서 음악을 통해 민족과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음악은 문화와 사회를 분석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Farnsworth는 “음악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음의 형태(patterns of sounds)로 만들어진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음악이 음악 자체가 이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문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각각의 문화가 무엇을 음악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음악이 아니라고 하는 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음악은 개인과 그 집단의 행동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음악 고유의 구조는 “그것이 어떠해야만 하며 또 어떠하면 안 된다”로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sup>17)</sup>

이로 인해 각 종족 음악은 사용하는 언어, 악기, 음계, 형식 등에서 각각 독특한 구조와 논리를 가지게 되어 그 음악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 예로 서양의 바이올린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어 인도의 남부 지역, 이란, 그리고 미국 인디언 나바호족과 아파치족에게 유입되었지만, 지금 그들 각 종족이 바이올린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음악은 서로 다른 것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민족의 문화는 심지어 같은 악기도 그 나름대로의 체계 속으로 동화시켜 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18)</sup> 이는 곧, “음악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한 양식의 음악이 보편적인 것

---

16) 주대창. 2007. 음악학 개론. 서울: 태성. 253쪽. 270쪽.

17) Alan P. Merriam. 2000. 박미경 역. 탈 서양 중심의 음악학. 서울: 동아시아. 48쪽.

18) 권덕원. 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 2호. 대구: 세계음악

이 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음악이 만국 공통어’라는 오류를 부정하게 된다.<sup>19)</sup>

따라서 종족음악학자는 인문적 측면의 산물인 음악을 연구하지만 음악이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의해 형성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양쪽에 관한 지식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 음악에 대한 우선적인 지식 없이 음악의 구조를 연구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 대한 우선적인 지식 없이 음악행위를 연구하는 일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sup>20)</sup>

Morey는 ‘서구적인 감정의 음악적 표현에 대한 서아프리카 토착민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슈베르트, 데이비스, 헨델, 바그너의 작품 중에서 공포와 존경, 분노와 사랑을 표현했던 곡을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 곡을 선택하여 리베리아의 오지에 있는 블라훈의 성 십자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정서적 반응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로 서양인의 정서를 느껴본 적 없는 리베리아의 로마(Loma) 종족들은 서양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서구적 감정의 음악적 표현으로는 리베리아 소년들에게서 서양 집단의 공통적인 반응의 어떠한 형태도 끄집어내지 못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로 리베리아 오지의 종족들은 서구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었고 음악적 소통이 불가능 했던 것이다. 이로서 음악은 곧 언어와 같은 것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특유의 음악 어법을 사용하며 양식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1)</sup>

---

학회. 56-57쪽.

19) Alan P. Merriam. 전계서. 9쪽, 27쪽.

20) 상계서. 45쪽.

### 3.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정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유럽 중심의 단일문화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념으로서, 어느 한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특히 다인종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사용하는 사람과 분야,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를 정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sup>22)</sup> 세계 최초로 1971년 캐나다 정부가 다문화주의 선언을 하고, 공식적 정책을 시행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북미와 남미, 유럽과 호주에서 사회과학과 공적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sup>23)</sup> 다문화라는 용어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며 점차 다양해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화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생겨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인간 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교육 현장에 반영된 것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sup>24)</sup>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1920년대 후반에 미국 이민자들의 민족적인 배경과 문화적 공헌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이라는 의미로 간문화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 사용되었다. 1960년대 초반에는

---

21) 상계서. 9쪽, 29쪽,

22) 권덕원 외 3명. 전계서. 58쪽.

23) Marco Martiniello. 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서울: 한울. 88쪽.

24) 배화여자대학 유아교육과. 2008. 다문화 교육의 실제. 서울: 다음세대. 13쪽.

소수민족의 자아 정체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민족연구(Ethnic Study)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특별한 그룹 뿐 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로 다민족 교육(Multiethnic Education)이 이해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다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등장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민족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속한 문화의 환경, 신념, 가치들도 고려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980년대에는 이에 종교, 나이, 사회경제적 지위, 소외계층, 다양성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sup>25)</sup>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 이전에 미국 및 서구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동화주의 시민교육은 다양한 집단 출신 학생들이 지닌 문화와 언어를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동화주의 시민교육의 결과 많은 학생들이 소속 집단의 문화, 언어, 인종적 정체성을 상실하였다.<sup>26)</sup> Schlesinger는 이를 탈문화화 현상(deculturalization)이라고 하여, 자신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서양의 문화를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 남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며, 자기 자신의 문화를 멸시하는 ‘부정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sup>27)</sup>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다른 문화를 단순히 인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써 지원하고 확장하려는 교육으로, 다양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국가가 바로 미

---

25) 이영미. 2010. “합창교육의 다문화적 접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국내 행사 창의·인성 교육 학술대회 Program II. 37쪽.

26) James A. Banks. 2008. 모경환 외 3인 역.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35쪽.

27) 권덕원. 전계서. 55-56쪽.

국이다. 그동안 다문화주의와 관련하여 미국사회를 표현하는 용어는 ‘멜팅 팟(melting pot)’이라는 단어로, 이는 각각의 재료의 특징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솥에 한꺼번에 모든 재료를 넣어 끓여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집단이 가진 본래의 속성을 없애고 제 3의 단일화된 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으로, 주류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제 3의 문화인체 하며 비주류집단들의 문화를 버릴 것을 강요하고 주류사회로 동화되도록 하였다. 때문에 요즘은 멜팅 팟 대신 가든 샐러드(garden salad)나 샐러드 접시(salad bowl), 혹은 캐나다에서 많이 쓰는 모자이크(mosaic)란 환유적 용어들이 미국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 더 설득력을 가지며,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용어들은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부분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는, 그러나 전체를 위하여 자신의 전통과 정체성을 상실할 필요없이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의 인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sup>28)</sup>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으로, 나아가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장하며, 사회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그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며, 더 나아가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도록 해 준다.<sup>29)</sup>

---

28) 류용재 · 김덕모, 2008. 소통하는 문화기획론. 경기: 한국학술정보, 55-57쪽.

29) 권덕원 외 3명, 전게서, 59쪽.

## (2) 다문화주의 교육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이주노동자와 거주 외국인과 국제결혼에 의해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혈통을 기반으로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에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과 포용의 과제를 던진다.<sup>30)</sup>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인 <표-2>에 따르면 2010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 급별 비율이 초 78.6%, 중 16.0%, 고 5.4%로, 초등학교의 비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 · 고등학교로 진학 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표-3>의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연령별 비율에서는 6세미만이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공교육의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31)</sup> 지역별 비율은 경기 22.3%, 서울 12.9%, 전남 9.6%, 전북 7.2%, 충남 7.0%로 경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부모국적별 비율은 일본 36.4%, 중국 17.3%, 필리핀 17.1% 순으로 무려 70.8%가 아시아 국적을 갖고 있다.

---

30) 유네스코 ·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파주: 동녘. 4쪽

31) 옥경희 외 1인. 2009.08.17.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9쪽

<표-2>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 급별 변화 추이<sup>32)</sup>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1,588	413	13,445	68.1
2008	15,804	2,213	761	18,778	39.6
2009	20,632	2,987	1,126	24,745	31.8
2010	23,602	4,814	1,624	30,040	21.4

\*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89.9%(27,001명)로 대부분을 차지

<표-3>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sup>33)</sup>

구분	만 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계
학생 수	33,140명	18,691명	3,672명	2,504명	58,007명
비율	57.1%	32.2%	6.3%	4.3%	100%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급별 비율 또한 초 62.9%, 중 25.5%, 고 11.6%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비율은 서울 39.7%, 경기 28.0%, 인천 7.6%, 부산 5.3%의 순으로, 부모국적별 비율은 몽골 20.8%, 중국 19.0%, 일본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정보자료실. 2010.10.15.

33)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외국인주민 89만명, 전년도 대비 23.3% 증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07.29.

<표-4>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 급별 변화 추이<sup>34)</sup>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증감(%)
2006	1,115	215	61	1,391	
2007	755	391	63	1,209	△13.0
2008	981	314	107	1,402	15.9
2009	834	307	129	1,270	△9.4
2010	1,099	446	203	1,748	37.6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며, 미래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책과 교육을 새로이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8월 유엔(United Nations)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한국 사회가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사실과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다른 민족국가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초·중등학교 교과목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sup>35)</sup> 이미 한국은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 2000년에 아·태 국제 이해교육원을 설립하여 2001년도부터 전국 단위 특수 분야(국제이해교육<sup>36)</sup>) 교원 직무

34)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정보자료실. 2010.10.15.

35) 민경훈. 2010. “다문화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전망”.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국내 행사 창의·인성 교육 학술대회 Program II. 48쪽.

36) 다문화 교육은 흔히 국제이해교육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두 개념은 목적과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제이해교육은 국가 간 경계를 전제로 하여 국경 너머에 존재하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다문화 교육은 한 사회 및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시·도는 국제 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몇몇 학교를 선정하고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문화를 직접·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CCAP(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 외국인과의 함께하는 문화 교실) 국제 이해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sup>37)</sup>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다문화 주의·다문화 사회의 역사와 배경, 다문화 사회 담론의 중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의 우수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모델과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교육적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sup>38)</sup>

## 4.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 (1)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정의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개념에 대해서 Williams, Elliot, 그 외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

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강조하는 것이다. 윤희원 외 5인. 전게서. 10쪽  
37) 민경훈 외 11명. 2009. 21세기 음악교육학 총론.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100쪽.  
38) 윤희원 외 5인. 전게서. 59쪽

〈표-5〉 David B. Williams의 초등학교 음악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민족, 민족음악 선별에 관한 네 가지 접근 방법

(a) 전통적 접근	서양음악과 적은 양의 다른 민족의 노래 학습
(b) 미국 내 민족에 대한 단일방향적 접근	미국의 한민족에 관한 문화를 선택 하여 깊이 학습
(c) 미국 내 민족에 대한 다방향적 접근	먼저 미국의 다양한 음악을 학습하고 그 후에 세계 음악을 학습
(d) 비서구적 접근	비 서양음악문화 중 문화를 깊이 학습 하거나 비서구 음악을 넓게 선별하여 학습

〈표-6〉 David J. Elliot의 다문화주의 음악교육 개념

(a) 동화	서양 고전 음악이 세계의 다른 음악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b) 융화	제한된 민족음악 중 기본적으로 서양 고전 작곡가들에 의해 통합된 것만 다룬다.
(c) 열린사회	음악은 인간의 개인적인 표현으로 여겨지고 문화적 유산과 음악적 전통은 무관하다.
(d) 편협한 다문화주의	서양적 전통에 부가된 지역사회 중 하나 또는 두 문화의 음악에 관한 연구로 원래의 교과 과정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한다.
(e) 수정된 다문화주의	지역적 경계, 인종성, 종교적 기초에 의해 선별된 음악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며 음악 요소간의 접근, 사회적 역할에 의해 음악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그 문화에 대해 가르친다.
(f) 강력한 다문화주의	세계적 관점에서 문화에 따른 음악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음악적 개념에 있어서 문화가 서양의 미학적 관점을 대신한다.

그 외 학자들의 다문화주의 음악의 정의로 Moore는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이란 미국의 다양한 문화적 집단의 음악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음악에 대해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접근이라고 하였고, Cambell은 다문화 음악교육을 소외된 계층 즉, 소수민족과 여성, 종교, 다른 생활방식을 가진 집단의 음악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Banks와 Cambell, Carol, Scott- Kassner의 저서에서도 다문화주의 음악교육은 인종, 민족적 기원에 의해 구별되는 집단 뿐 아니라 다른 세대와 다른 나이, 사회적 계급, 성,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sup>39)</sup>

## (2) 다문화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역할<sup>40)</sup>

우리의 음악교육에서 다문화주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 음악교육은 서양음악을 위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0년대 이후 국악 교육의 비중이 점차로 높아졌고, 뿐만 아니라 비서구 지역의 음악들도 음악 교육에서 그 비중을 넓혀가고 있어 서양음악 위주의 단일문화주의에서 여러 지역의 음악을 다루는 다문화주의적 경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1)</sup> 이처럼 학교 음악교육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은 각 나라 간의 문화적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알맞게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 음악을 취급함에 있어서 유럽의 민요나 고전 음악 등과 관련하여 실용 위주의 제한적인 음악 어법이나 정보적 소개 정도로 취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우리는 별 의식 없이 외국 곡의 원래 가사를 자유롭게 개사하여 불렀다. 이로 인해

39) 최은영. 2004. 전계서. 4-5쪽. 재인용.

40) 민경훈 외 11명. 2010. 전계서 149-157쪽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41) 권덕원 외 3명. 전계서. 59쪽.

음악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본질 혹은 사회적·문화적 본질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음악적 느낌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다문화 음악교육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 과거에 우리가 경쾌하게 불렀던 뉴질랜드 마우리 족의 민요 ‘에 포이 타이 타이 예(E poi tai tai e)’는 ‘나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마우리 족의 슬픈 정서를 표출한 민요이다. 그러나 우리가 마우리 족 민요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왜곡된 해석으로 이를 경쾌하게 불렀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의 예로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나비야>는 원래 독일의 민요로 원 곡은 <소년 한스(Hänschen klein)>이다. 이 노래는 원래 3절로, 집을 떠난 꼬마 한스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기초하는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즐거운 생활’에 소개된 <소년 한스> 악보와 원래 독일어로 된 3절까지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1> 소년 한스

소년 한스

독일 민요

한 스 는 갔 지 요 넓은 세 상 밖 으 로  
 지 땅 이 모 자 가 어 울 렸 다 네  
 엄 마 슬 퍼 울 었 죠 한 스 보 고 실 어 서  
 행 운 을 빌 면 서 기 다 름 다 네

원곡의 가사 내용

[1절]

Haenschen klein geht allein in die weite Welt hienin.

(꼬마 헨셴은 홀로 넓은 세상으로 나갔지요)

Stock und Hut steht ihm gut, ist gar wohl gemut.

(모자와 지팡이가 그에게 정말 어울립니다)

Aber Mutter weinet sehr, hat ja nun kein Haenschen mehr.

(엄마는 더 이상 헨셴을 보지 못해 매우 슬펐죠)

Wuensch dir Glueck, sagt ihr Blick, kehr nur bald zurueck.

(행운을 빌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합니다)

[2절]

Sieben jahr, trueb und klar, Haenschen auf der Reise war

(바깥세상에서 헨셴은 7년의 세월을 보냈지요)

da besinnt sich das Kind, eilet heim geschwind.

(꼬마는 느꼈지요, 집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Doch nun ist's kein Haenschen mehr,

(이제 더 이상 작은 헨셴이 아닙니다)

nein, ein grosser Hans ist er. (그는 큰 한스가 되었습니다)

Schwarz gebrannt Stirn und Hand, (이마와 손이 검게 탔습니다)

Wird er wohl erkannt? (과연 한스를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3절]

Eins, zwei, drei gehn vorbei, (하나, 둘,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wissen nicht, wer das wohl sei. (그들은 한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Schwester spricht: "Welch Gesicht" kenn den Bruder nicht

(동생이 말합니다. “누구지?” 오빠를 못 알아봅니다)

Doch da kommt sein Muetterlein, schaut ihm kaum ins Aug' hinein

(엄마가 달려옵니다. 한 눈에 그를 알아봅니다)

spricht sei schon; "Hans, mein Sohn!"

(엄마가 말합니다. “한스 나의 아들아!”)

“Guess dich Gott, mein Sohn!” (“잘 왔다. 나의 아들아!”)

역시 흔히 들을 수 있는 음악 <노래는 즐겁다>도 잘못된 노래 가사 바꾸기 식의 노래이다. 이 곡은 독일 남부에 위치한 슈바벤(Schwaben) 지방의 민요로 원곡의 가사는 하인리히 바그너가 붙였으며, 원명은 이별(Abschied)이다. 이 노래는 여자 친구와의 석별을 아쉬워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헤어지려는 청년의 의지가 담긴 음악이다. 중세 독일과 산업 혁명의 시기에는 일자리와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독일에는 여행이나 이별을 주제로 한 민요가 많다. 다음은 우리나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즐겁다>의 악보와 독일어 원곡 <떠나자, 이 도시를(muss I denn)>의 1절 가사이다.

<악보-2> 노래는 즐겁다

노래는 즐겁다

♩ = 112 (활기 있게) 독일 민요

*mf*  
노래 는 즐겁구 나 - 산 너머길 나무들이 울 - 창 한 이 산 에

*mp* *mf*  
가 고 갈 수 록 산 새 들 이 즐 거 이 노 래 - 해

*f* *p*  
햇 빛 은 나뭇잎 새 로 반 짝 이 며 우 리 들 의 노 - 래 는 즐 겁 다

원곡의 가사내용(1절)

[첫째단]

Muss I denn muss I denn (나는 가야만 하네)  
zum staedtele hinaus (도시를 향하여)  
staedtele hinaus (도시로 나가지만)  
und du mein schatz bleibst hier (사랑하는 당신은 이곳에)  
Wenn i komm, wenn i komm,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wenn i wieder wieder komm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wieder wieder komm (다시, 다시 돌아온다면)  
kehr i ein, mein Schatz bei dir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돌아오리)

[둘째단]

Kann i auch, immer bei dir sein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을 거야)  
han I doch mein Freud an dir (당신 곁에서 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야)

[셋째단]

Wenn i komm, wenn i komm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wenn i wieder wieder komm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wieder wieder komm (다시, 다시 돌아온다면)  
kehr i ein, mein Schatz bei dir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돌아오리)

이같이 세계민요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 왜곡된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생들은 학문적 관점에서 해당 나라의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여야 하며, 교사는 다문화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민요들을 단순히 부르거나 소개하는 음악 활동의 객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주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음악 수업이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의 민요를 다룰 때는 실제 음악 활동들(예: 가창, 기악, 창

작, 감상 등)은 물론이고, 해당 나라의 생활 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 경우에 따라서는 춤 등과도 연관하여 다루어야 한다.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언어적 · 문화적 · 사회적 관점에서 음악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발달과정과 음악적 발전과정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직접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그들의 음악문화와 표현방법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각국의 음악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음악적 표현양식을 인지적 · 정의적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넷째, 타민족이 그들의 음악을 표현하는 연주방식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 음악교육은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낯선 나라들과 그들의 문화를 발견하는 학습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국적인 음악, 예를 들면 지속적인 반복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프리카 음악들은 학생들을 매우 흥미롭게 할 것이다.

여섯째,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면서 창의적인 표현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일곱째, 다문화 음악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음악으로는 타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적 민요를 중심으로 종교음악, 예술음악 그리고 우리 시대의 음악들(예: 팝, 록, 재즈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sup>42)</sup>

이제 우리나라는 코시안의 급증과 아시아권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함에 따라 점차 음악교육 영역에서도 이들의 사회성과 정체성을 배려하여 그들 문화권에 속하는 음악에 대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독일은 외국 학생을 상대로 한 동화 교육에 있어서 특히 음악 교육이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Merkt 역시 수업

---

42) 민경훈. 2004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의 의미와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제 28호. 445-446쪽.

중에 주로 말이나 이론이 주가 되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감각적이며 감성적인 통합적 음악 활동(노래하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등)이 외국인 교육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코시안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그들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 문화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경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사회적 동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음악을 배운다면, 특정 음악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음악에 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자국의 고유한 음악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identity)을 갖게 된다.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특성-남과 비교될 수 없는 고유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Sue Gamble은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기 문화 뿐 아니라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인식하고 그 민족의 가치와 신념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기초적인 능력이 된다고 하였다.<sup>43)</sup> 즉,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음악교육은 자국의 고유한 음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이들 음악 문화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이로서 학습자의 국제적 친화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각 국가 간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의 충돌로 인해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인류에게 서로 간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유익한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43)권덕원. 2000. 전계서. 55쪽.

### Ⅲ. 중학교 교과서의 세계민요 분석

#### 1. 세계민요 분석을 위한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

중학교 1학년 8종 교과서에 수록된 세계민요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대륙별·악곡별로 분류하고,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 악곡의 수와 제재곡과 참고곡의 비율, 활동영역별 비율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세계민요가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 다양한 나라·민족의 음악으로 수록되었는지 대륙별·악곡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세계민요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곡에서의 세계민요 비율을 파악해 본다. 또한 세계민요를 제외한 전체곡의 제재곡·참고곡의 비율과 세계민요곡의 제재곡·참고곡의 비율을 알아본 후 세계민요를 제외한 전체곡의 활동영역별 비율과 세계민요곡의 활동영역별 비율이 어떠한지 알아본다.

한편 세계민요의 수업이 일반적인 음악이론 이해가 중심이 되는 음악수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세계민요 학습활동을 통한 다문화 음악교육을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계민요의 단순한 수치에 의한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준거하여 기본적인 음악 이해요소와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요소를 적용하여 만든 표인 <표-10, 아시아민요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를 통해 세계민요의 학습활동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한다. 이로서 음악 교과서에서 다문화 음악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해본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표-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

에서의 세계민요 학습>과 같이 각 학년 별 다른 나라의 노래 부르기를 대륙별로 구분해놓았고, 활동·이해·생활화로 나누어 놓은 내용체계도 각 학년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7학년 내용체계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표-9,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7학년의 학년별 내용과 다문화 관련내용 적용>에서 제시한대로 다문화와 관련시킬 수 있는 분석요소만을 참고하여 교과서 분석기준인 <표-10, 아시아민요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할 7학년은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표-10>에 준거하여 아시아민요의 학습활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반영여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세계민요 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곡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교과서는 학습목표가 있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곡을 제재곡으로, 학습목표가 없거나 그와 관련이 없는 곡은 참고곡이라 한다.<sup>44)</sup>

둘째, 좀 더 정확한 활동영역 간 분석을 위해 학습목표에 두 가지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곡은 1곡을 0.5곡으로 나누어 각각의 활동영역에 포함시킨다.

셋째, 전체곡과 세계곡의 제재곡과 참고곡의 악보는 정간보와 리듬악기를 위한 리듬 악보도 포함하지만, 발성 연습을 위한 연습곡이나 감상을 위해 곡의 일정한 부분만을 제시한 것과 같이 하나의 완전한 곡이 아닌 악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넷째, 8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지역 민요

---

44) 도서출판 태성은 수록된 모든 곡에 학습목표가 제시되어있지 않았고, 제재곡과 참고곡에 대한 언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간보를 포함한 하나의 완전한 곡을 모두 제재곡이라 하였고, 활동영역은 제시된 학습활동을 참고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의 학습활동은 다문화 음악교육과 관련이 없는 단원에서 일반적인 음악이해의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표-10>을 통한 다문화반영여부 분석은 하지 않고 학습활동만을 간단히 제시한다.

<표-7>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서의 세계민요 학습<sup>45)</sup>

학년	활동 영역
3학년	다른 나라 동요(아시아) 부르기
4학년	다른 나라 동요(유럽) 부르기
5학년	다른 나라 동요(아메리카) 부르기
6학년	다른 나라 동요(아프리카) 부르기
<b>7학년</b>	<b>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b>
8학년	다른 나라 노래(유럽) 부르기 여러 지역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9학년	다른 나라 노래(아메리카) 부르기 악곡의 내용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
10학년	다른 나라 노래(아프리카) 부르기 악곡의 내용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며 감상하기 여러 문화권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다른 예술과의 관련성 탐색하기

45)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3-6쪽.

4. 교수 · 학습 방법

가. 교수 · 학습 계획

(1) 교수 · 학습 계획은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에 근거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능력수준, 흥미도 및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교사는 지역, 학교 및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을 **융통성**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나. 교수 · 학습 방법

(2) 음악 표현 능력과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4) 사진, 영상과 같은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등의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6) 음악 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다. 학교 급별 · 내용 영역별 지도

(1) 학교 급별 지도 방향

(나) 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신체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음악 표현 능력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이해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또한,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음악을 생활화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

46) 상계서. 17-18쪽.

〈표-9〉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7학년의 학년별 내용과 다문화 관련 내용 적용

분석요소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분석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활동	가창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그 나라 · 민족의 민요가 갖는 특징을 살려 노래 불러 보는가?
		가곡, 민요 부르기	그 나라 · 민족의 언어인 원어로 노래 부르고 있는가?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가?
		간단한 2부 합창하기	.
	기악	가락 악기 연주하기	전통악기로 반주하거나 연주해보는가?
		합주하기	전통악기 합주활동을 포함하는가?
	창작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는가?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민요의 음계를 사용하여 가락짓기를 해보는가?
	감상	여러 시대의 음악 비교하며 감상하기	다른 나라 · 민족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해 보는가?
	이해	리듬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 풀
가락		임시표를 포함하는 가락	.
		음계(민요의 여러 조)	민요의 음계를 학습해 보는가?
화성		마침꼐(V-I)	.
형식		형식(AB, ABA)	.
셈여림		.	.

	빠르 기	.	.
	음색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	여러 가지 전통악기를 제시하고 음색을 경험해보는가?
생활 화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다른 나라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을 서로 비교하며 학습해보는가?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민요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리는지 제시되어 있는가?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	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표-10> 아시아민요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

분석요소		분석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활동	가창	그 나라 · 민족의 민요가 갖는 특징을 살려 노래 불러 보는가?
		그 나라 · 민족의 언어인 원어로 노래 부르고 있는가?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가?
		*2부 합창으로 불러보는가?
	기악	전통악기로 반주하거나 연주해보는가?
		전통악기 합주활동을 포함하는가?
	창작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는가?
		민요의 음계를 사용하여 가락짓기를 해보는가?
감상	다른 나라 · 민족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해보는가?	
이해	리듬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을 학습해보는가?

	가락	*임시표를 포함하는 가락을 학습해보는가?
		민요의 음계를 학습해보는가?
	음색	여러 가지 전통악기를 제시하고 음색을 경험해보는가?
생활화		다른 나라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을 서로 비교하며 학습해보는가?
		민요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리는지 제시되어 있는가?
		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 [ \* ]로 표시한 다문화와 관련 없는 분석요소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음악이해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안당의 인도네시아민요 <내 어머니>의 분석을 위해 제시하였다.

## 2. 8종 교과서의 세계민요 분석

<표-11> 세계민요의 지역별 분류<sup>47)</sup>

교과서 지역	더 텍스 트	도서 출판 태성	(주) 금성 출판 사	(주) 미래 엔 컬처 그룹	법문 사	성안 당	세광 음악 출판 사	현대 음악	합계
	일본	1	1	2	1	1	1	1	1
중국	1	1	2	1	1	1	1	1	9
이스라엘	1	1	1	1	1	1	·	1	7
터키	·	·	1	2	1	1	·	1	6

아시아	베트남	.	.	.	.	1	1	1	1	4	55
	인도네시아	.	.	1	.	1	1	.	1	4	
	필리핀	.	1	1	1	1	.	.	.	4	
	인도	.	1	.	.	1	1	.	.	3	
	몽골	.	.	.	.	1	1	.	.	2	
	이란				1	1	.	.	.	2	
	대만	.	.	.	.	.	1	.	.	1	
	스리랑카	.	.	.	1	.	.	.	.	1	
	싱가포르	.	.	.	.	.	1	.	.	1	
	키르기스스탄	1	.	.	.	.	.	.	.	1	
	태국	.	.	1	.	.	.	.	.	1	
아메리카	미국	.	.	1	1	.	.	.	.	2	3
	카리브해	.	.	1	.	.	.	.	.	1	
유럽	독일	.	.	.	.	1	.	1	1	3	16
	보헤미아	.	.	.	2	.	.	.	1	3	
	영국	1	.	.	1	.	1	.	.	3	
	스위스	.	.	.	1	.	.	1	.	2	
	스코틀랜드	.	1	.	.	.	.	.	1	2	

	노르웨이	1	.	.	.	.	.	.	.	1	
	러시아	.	.	1	.	.	.	.	.	1	
	프랑스	.	1	.	.	.	.	.	.	1	
오 니 세 아 아	뉴질랜드	.	.	1	1	.	.	.	.	2	2
합 계		6	7	13	14	11	11	5	9	76	

※ 악곡이 많은 순서대로 제시하고 같은 곡 수의 국가들은 가, 나, 다 순으로 제시하였다.  
 수록된 아시아민요 중 (주)금성출판사의 일본민요 1곡과 중국민요 1곡은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 실린 곡이 아니므로,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 실린 아시아민요는 모두 53곡이다.

<표-12> 아시아의 지역별 악곡 수

교과서 지역	더 텍스 트	도서 출판 태성	(주) 금성 출판 사	(주) 미래 엔 컬처 그룹	법문 사	성안 당	세광 음악 출판 사	현대 음악	합계
동아시아	2	2	4	2	3	4	2	2	<b>21</b>
동남아시아	.	1	3	1	3	3	1	2	14
서아시아	1	1	2	3	2	2	.	2	13
남아시아	.	1	.	2	2	1	.	.	6
중앙아시아	1	.	.	.	.	.	.	.	<b>1</b>
합계	4	5	9	8	10	10	3	6	55

47) <http://ko.wikipedia.org/wiki/>. 대륙별 나라 분류는 국제 연합(UN)의 분류를 따른 위키백과를 참고하였다.

<표-13> 세계민요의 악곡별 수

교과서 지역 및 악곡		더 텍스 트	도서 출판 태성	(주) 금성 출판 사	(주) 미래 엔 컬처 그룹	법문 사	성안 당	세광 음악 출판 사	현대 음악	합계	
아 시 아	모리화	.	.	○	○	○	○	○	○	6	55
	벚꽃	.	○	○	.	○	○	○	○	6	
	달아달아	.	○	.	○	○	○	.	.	4	
	우스쿠다라	.	.	○	.	○	○	.	○	4	
	꽃은지고	.	○	○	.	○	.	.	.	3	
	몽골의 밤의노래	.	.	.	.	○	○	.	.	2	
	소매꽃	.	.	.	○	○	.	.	.	2	
	안녕	.	.	.	○	○	.	.	.	2	
	양거춤 추세	.	.	.	.	○	.	.	○	2	
	어린이들 의 축제	.	.	.	.	○	○	.	.	2	
	하바나길라	.	.	○	.	.	.	.	○	2	
	한곡씩 수록된 곡	4	2	4	4	.	4	1	1	20	
미 국	언덕위의 집	.	.	.	○	.	.	.	.	1	

	할아버지 시계	.	.	○	.	.	.	.	.	1	3
	흐르는 시냇물	.	.	○	.	.	.	.	.	1	
유럽	이제해가 비치네	○	.	.	.	.	.	.	.	1	16
	피크닉의 노래	○	.	.	○	.	.	.	.	2	
	아름다운 나의 벗	.	○	.	.	.	.	.	○	2	
	작은 별	.	○	.	.	.	.	.	.	1	
	러시아 자장가	.	.	○	.	.	.	.	.	1	
	푸른목장	.	.	.	○	.	.	.	.	1	
	노래는 즐겁다	.	.	.	.	○	.	○	○	3	
	노엘	.	.	.	.	.	○	.	.	1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	.	.	.	○	.	.	○	.	2	
	별을 보고	.	.	.	○	.	.	.	○	2	
오세 아니 아	연가	.	.	○	○	.	.	.	.	2	2
합계		6	7	13	14	11	11	5	9	76	

세계민요를 대륙별·악곡별로 분류하여 분석해본 결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7학년 활동영역 내용에서 명시한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대로 세계민요 대부분의 곡이 아시아지역의 민요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민요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일본, 중국, 터키의 세계민요로 편중되어 있었다. 일본과 중국민요가 9곡씩, 이스라엘 민요 7곡, 터키민요는 6곡이 수록된 반면 대만과 스리랑카, 싱가포르, 키르기스스탄, 태국의 민요는 8종 교과서 중 단 한 곡씩 실려 있었다.

아시아를 다시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동아시아지역은 일본민요 9곡, 중국민요 9곡, 몽골민요 2곡, 대만민요 1곡으로 가장 많은 수의 민요를 보이며 4개 국가의 민요 21곡을 수록하고 있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여건으로 자연히 다른 아시아지역보다 주변 국가인 중국, 일본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다른 아시아지역보다 더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많은 수의 민요가 실린 동남아시아는 베트남민요 4곡, 인도네시아민요 4곡, 필리핀 4곡, 싱가포르 4곡, 태국 1곡으로 5개 국가의 민요 14곡이, 서아시아는 이스라엘민요 7곡, 터키민요 6곡으로 2개 국가의 민요 13곡이 실려 있었다. 한편, 남아시아는 인도민요 3곡, 이란 민요 2곡, 스리랑카민요 1곡으로 3개 국가의 민요 6곡이, 가장 적은 수의 민요가 실린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스탄민요 1개 국가의 민요 1곡이 실려 있었다.

이처럼 6개국 중 4개 국가로 21곡의 민요가 실린 동아시아와 10개국 중 5개 국가로 14곡의 민요가 실린 동남아시아는 다른 아시아지역에 비해 다양한 국가로 많은 민요가 수록되어 있었지만, 17개 국가로 이루어진 서아시아는 13곡의 민요가 2개 국가의 민요만으로 이루어져 많은 수의 민요가 실려 있을 뿐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5개국으로

이루어진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스탄 1곡의 1곡의 민요만이 실려 있어 가장 적은 수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 대륙 가운데 단 한 곡의 민요도 수록되지 않은 서아시아의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카타르, 남아시아의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자니스탄, 트루크메니스탄 등의 나라의 민요가 교과서에 포함된다면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악곡으로 세계민요가 다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세계민요 학습을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민요 부르기’로 제시한다면 이와 같은 지역별 편중현상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노래 부르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편중현상 뿐 만 아니라 악곡의 편중현상도 나타났다. 8종 교과서에 모두 9곡이 실려 있는 일본민요는 <벚꽃>이 도서출판 태성, (주)금성출판사, 법문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 6곳의 출판사에 동일하게 실려 있었고, 중국민요도 총 9곡 중 <모리화>가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법문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 6곳의 출판사에서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또한 터키민요는 총 6곡 중 <우스쿠다라>가 (주)금성출판사, 법문사, 성안당, 현대음악 4곳의 출판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중 몇 곡은 이미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1·2·3학년의 교과서에서도 제시되었던 곡으로, <모리화>는 5차례, <안녕>과 <우스쿠다라>는 3차례, <내 어머니>, <양거춤 추세>, <코끼리 바나마>는 2차례, <돌아가리>, <물에 비친 하늘>, <소맥꽃>, <여름 날>, <하바나길라>는 각각 1차례씩 실려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악곡의 편중현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세계민요

를 계속해서 교과서에 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앞으로는 다문화 음악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각 국가·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되고, 문화적·역사적·예술적·교육적 가치를 고루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민요도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하여야겠다.

한 곡씩 수록된 곡으로는 더 텍스트에 중국민요 <무지개 자매>, 키르기스스탄민요 <축복 말씀을 나누세>, 이스라엘민요 <휴식>, 일본민요 <반딧불이 나오거라>와 도서출판 태성에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 (주)금성출판사의 중국민요 <중국 자장가>, 일본민요 <일본 자장가>, 인도네시아민요 <봉아 완 솔로>, 태국민요 <보름달>이 있었다. 또한 (주)미래엔 컬처그룹에는 필리핀민요 <아들아>, 터키민요 <여름날>과 <풍년의 노래>, 스리랑카민요 <코끼리 바나마>, 성안당은 인도네시아민요 <내 어머니>, 이스라엘민요 <줍갈리>, 싱가포르민요 <찬 알리 찬>, 대만민요 <아리산의 아가씨>, 세광음악출판사에는 베트남민요 <즐거운 축제>, 현대음악에는 베트남민요 <리디아 빠임 보>가 있었다.

이처럼 한곡씩 수록된 곡들은 8종 교과서에 각각 더 텍스트 4곡, 도서출판 태성 2곡, (주)금성출판사 4곡, (주)미래엔 컬처그룹 4곡, 성안당 4곡, 세광음악출판사 1곡, 현대음악 1곡씩 실려 있었다. 이 중 더텍스트는 8종교과서에서 유일하게 키르기스스탄의 민요를, (주)금성출판사에서는 태국민요를, (주)미래엔 컬처그룹은 스리랑카민요, 성안당은 대만과 싱가포르민요를 실고 있어 일하게교과서와 달리 지역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법문사는 10곡이라는 많은민요를,민요를 수록하고 있음에도 법문사한 출판사에만 실려 있는 곡은 단 한 곡도 없어 수록된 모든 아시아민요가 다른 출판사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종 교과서에는 아메리카대륙 역시 북아메리카의 미국민요 2곡만을 수록하고 북아메리카의 멕시코와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민요는 한

곡도 실지 않아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나타났고, 아프리카민요는 단 한 곡도 수록되지 않았다. 또한 2곡의 민요가 수록되어 있는 오세아니아는 두 곡 모두 뉴질랜드민요인 <연가>를 신고 있어 지역적인 편중현상과 함께 악곡의 편중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유럽은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의 민요가 각각 4곡, 6곡, 6곡씩 실려 있어 고른 분포를 보였다.

물론 8종 교과서의 아시아민요가 같은 교과서 내에서 같은 악곡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세계민요 교수-학습과정에서 다른 교과서를 참고할 수도 있으므로 각 교과서마다 독자적인 지역과 악곡의 특징을 갖는 것이 다문화 음악교육에 더욱 적합하다. 따라서 교과서의 세계민요에 대륙별 분류의 다양성만이 아니라 대륙별 분류 안에서의 국가별 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하며, 악곡의 차별화와 다양성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의 악곡 수

<표-14>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의 악곡 수

	더 텍스트	도서 출판 태성	(주) 금성 출판사	(주) 미래엔 컬처 그룹	법문사	성안당	세광 음악 출판사	현대 음악	합계
전체 곡수	47	41	65	62	39	52	47	48	401
세계 민요 곡수	6	7	13	14	11	11	5	9	76
민요 비율 (%)	12.8	17.1	20	22.6	28.2	21.2	10.6	18.7	19

교과서에서의 세계민요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곡의 비율이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로 법문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성안당> (주)금성출판사> 현대음악> 도서출판 태성> 더 텍스트> 세광음악출판사 순으로 나타났다. (주)금성출판사, 성안당, (주)미래엔 컬처그룹, 법문사는 20%가 넘는 비율로 세계민요가 실려 있는데 비해, 더텍스트는 12.8%, 세광음악출판사 10.6%로, 다른 출판사에 비해 세계민요곡이 비교적 적게 수록되어 있었다. 태성은 17.1%, 현대음악은 18.7%의 비율로 나타났다.

### (3) 전체곡과 세계민요의 제재곡과 참고곡의 악곡 수

<표-15> 제재곡과 참고곡의 악곡 수

(수, 전체곡에 대한 %)

		제재곡	참고곡	합계
더 텍스트	전체곡	35 (85.4)	6 (14.6)	41 (100)
	세계 민요곡	<b>6</b> <b>(100)</b>	0 (0)	6 (100)
도서출판 태성	전체곡	33 (97.1)	1 (2.9)	34 (100)
	세계 민요곡	<b>7</b> <b>(100)</b>	0 (0)	7 (100)
(주)금성 출판사	전체곡	33 (63.5)	19 (36.5)	52 (100)
	세계 민요곡	<b>4</b> <b>(30.8)</b>	<b>9</b> <b>(69.2)</b>	<b>13</b> <b>(100)</b>
(주)미래엔 컬처그룹	전체곡	43 (89.6)	5 (10.4)	48 (100)

	세계 민요곡	13 (92.9)	1 (7.1)	14 (100)
법문사	전체곡	18 (64.3)	10 (35.7)	28 (100)
	세계 민요곡	9 (81.8)	2 (18.2)	11 (100)
성안당	전체곡	31 (75.6)	10 (24.4)	41 (100)
	세계 민요곡	10 (90.9)	1 (9.1)	11 (100)
세광음악 출판사	전체곡	39 (92.9)	3 (7.1)	42 (100)
	세계 민요곡	<b>5</b> <b>(100)</b>	0 (0)	5 (100)
현대음악	전체곡	35 (89.7)	4 (10.3)	39 (100)
	세계 민요곡	8 (88.9)	1 (11.1)	9 (100)

※전체곡 수는 전체곡에서 세계민요를 제외한 곡의 수이다.

앞서 세계민요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재곡과 참고곡의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참고곡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교과서에서는 학습목표가 있거나 그와 관련이 있는 곡을 제재곡으로, 학습목표가 없거나 그와 관련이 없는 곡은 참고곡이라고 하였다. 학습목표는 수업활동을 통해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고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므로 수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수업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학습목표가 있는 제재곡에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게 되는 반면, 참고곡은 학습목표의 제시 없이 악곡만을 수록해놓아 구체적인 학

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수업에서 활용되고 학습될 확률이 제재곡보다 훨씬 더 낮게 된다. 따라서 세계민요의 제재곡과 참고곡의 비율은 어떠한지 세계민요를 제외한 전체곡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금성출판사의 세계민요곡을 제외한 모든 출판사의 전체곡과 세계민요곡 모두 제재곡의 수가 참고곡의 수보다 많이 나타났고, 전체곡의 제재곡 비율보다 세계민요곡의 제재곡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금성출판사는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곡의 비율이 20%로 세계민요가 적절하게 수록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계민요 13곡 중 4곡이 제재곡으로, 9곡이 참고곡으로 실려 있어 참고곡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에 더텍스트, 도서출판 태성, 세광음악출판사는 세계민요의 모든 곡인 100%가 제재곡으로 수록되어 있었고, (주)미래엔 컬처그룹 92.9%, 성안당 90.9%, 법문사 81.8%, 현대음악 88.9%로 4종 교과서의 세계민요에서도 제재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8종 교과서 중 (주)금성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모든 교과서에 세계민요가 제재곡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고, 세계민요 제재곡의 비중이 전체곡의 제재곡 비중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전체곡과 세계민요곡의 활동영역별 악곡 수

<표-16> 활동영역별 악곡 수

(수, 전체곡에 대한 %)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합계
더 텍스트	전체곡	33.5 (81.7)	6 (14.6)	0.5 (1.2)	1 (2.5)	41 (100)
	세계민요곡	6 (100)	0 (0)	0 (0)	0 (0)	6 (100)

도서출판 태성	전체곡	17 (50)	11 (32.4)	0 (0)	6 (17.6)	34 (100)
	세계 민요곡	4 (57.2)	0.5 (7.1)	0 (0)	<b>2.5</b> <b>(35.7)</b>	7 (100)
(주)금성 출판사	전체곡	35.5 (68.3)	14 (26.9)	1.5 (2.9)	1 (1.9)	52 (100)
	세계 민요곡	11.5 (88.5)	1 (7.7)	<b>0.5</b> <b>(3.8)</b>	0 (0)	13 (100)
(주)미래엔 컬처그룹	전체곡	37.5 (78.1)	6.5 (13.5)	1 (2.1)	3 (6.3)	48 (100)
	세계 민요곡	13.5 (96.4)	0.5 (3.6)	0 (0)	0 (0)	14 (100)
법문사	전체곡	21 (75)	5.5 (19.6)	0.5 (1.8)	1 (3.6)	28 (100)
	세계 민요곡	2 (18.2)	0 (0)	0 (0)	<b>9</b> <b>(81.8)</b>	11 (100)
성안당	전체곡	27.5 (67.1)	8.5 (20.7)	1.5 (3.7)	3.5 (8.5)	41 (100)
	세계 민요곡	8 (72.7)	0 (0)	0 (0)	<b>3</b> <b>(27.3)</b>	11 (100)
세광음악 출판사	전체곡	29 (69)	10.5 (25)	0 (0)	2.5 (6)	42 (100)
	세계 민요곡	4.5 (90)	0.5 (10)	0 (0)	0 (0)	5 (100)
현대음악	전체곡	21.5 (55.1)	9 (23.1)	3 (7.7)	5.5 (14.1)	39 (100)
	세계 민요곡	7 (78)	1 (11 )	<b>1</b> <b>(11)</b>	0 (0)	9 (100)

※전체곡 수는 전체 곡에서 세계민요를 제외한 곡의 수이다.

세계민요곡을 활동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가창영역의 비율이 더 텍스트 100%, (주)미래엔 컬처그룹 96.4%, 세광음악출판사 90%, (주)금성출판사 88.5%, 현대음악 78%, 성안당 72.7%로 도서출판 태성과 법문사를 제외한 세계민요 학습활동의 대부분이 가창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문사는 감상영역이 약 87%로 감상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도서출판 태성은 35.7%, 성안당에서는 27.3%의 감상활동 비율이 나타났다.

감상활동이 나타난 도서출판 태성은 대단원 ‘노래의 여러 모습’의 ‘아시아의 민요’에서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민요를 찾아 들어보고 색다르게 느껴지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는 학습활동에 학습자료 IV21-25를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문사는 ‘음악 감상’ ‘세계의 음악: 아시아 편’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민요를 감상하고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라는 학습목표에 아시아의 민요에 대한 설명과 지도에 각 나라의 위치, 국기와 전통악기·연주사진만을 수록하였고, 성안당은 ‘감상’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에서 감상활동인데도 “아시아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아시아민요를 불러보자”라는 가창활동의 학습목표와 함께 아시아 음악의 특징에 대한 설명만을 실어 놓고 있었다. 따라서 이 두 출판사 모두 감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감상활동으로서 다른 학습활동과의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낮은 비율로 나타난 기악활동은 그 나라나 민족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악기를 활용한 활동이 아니라 리코더나 작은북,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의 가락 악기와 리듬악기를 사용한 기악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민요의 학습영역에서는 창작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주)금성출판사는 가창 88.5%, 기악 7.7%, 창작 3.8%, 현대음악은 가창 78%, 기악 11%, 창작

11%로, 다른 출판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창작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금성출판사에서는 제재곡인 인도네시아민요 <붕아완 솔로(솔로 강)>의 음계를 이용한 가락 만들기 창작활동이, 현대음악에서는 보헤미아민요 <별을 보고>에서 한 도막 형식의 노래 만들기, 베트남민요 <리 디아 빠임 보(Lí dĩa bánh bò)>에서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래동화나 설화 등을 음악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계민요를 학습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세계민요 학습활동의 대부분이 가창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전체곡에서도 가창영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세계민요는 전체곡의 가창활동 비중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곡에서의 창작활동과 감상활동도 가창, 기악활동에 비해 낮은 비율로 나타나긴 하지만 도서출판 태성, 세광음악출판사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가 전체곡에 창작활동을 포함하고, 모든 출판사가 전체곡에서 감상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세계민요의 창작활동은 (주)금성출판사와 현대음악을 제외한 다른 출판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고, 세계민요의 감상활동은 도서출판 태성, 법문사를 제외한 다른 출판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민요는 구전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음악으로 가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요를 감상활동으로 제시하면서도 그에 적합한 학습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고, 기악활동에서는 그 나라·민족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악기가 아닌 리코더나 작은 북, 탬버린, 캐스터네츠의 일반적인 가락 악기와 리듬악기가 사용되었다. 세계민요 음악을 이해하는데 그 나라와 민족의 전통악기가 주는 정보는 매우 중요하므로 전통악기의 음색이나 그 민족의 삶에서 전통악기의 역할과 가치, 각 나라별 전통악기의 분포와 비슷한 악기비교 등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그 나라 · 민족의 음악 외의 다른 문화나 민요의 음계를 이용한 창작활동으로 특징적인 느낌과 정서를 느껴보도록 해야 하며, 그 나라 · 민족의 다른 음악을 감상해보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요와 세계민요를 비교해보거나 다른 나라의 민요들을 서로 비교 · 감상해 보도록 하는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계발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민요의 학습활동이 가창중심이 아닌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영역으로 골고루 이루어져, 다양한 경험을 통한 다문화 음악교육이 되도록 교사는 교과서의 부족한 내용을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고, 철저한 수업 계획과 학습자료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아가 넓은 시야와 포용력으로 다른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 분야의 과목(지리, 역사, 사회, 미술, 외국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수업을 설계한다면, 좀 더 다양한 문화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 3.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민요 학습활동

아시아지역의 민요는 모두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실려 있지만 각 교과서마다 주로 1, 2곡씩 실려 있는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역의 민요는 모두 다 세계민요 학습활동과 관련 없는 단원에서 제시 된다. 더 텍스트 ‘아름다운 가락’단원에 제창곡으로 실려 있는 노르웨이민요 <이제 해가 비치네>는 “장음계 또는 단음계 가락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부르며 악곡의 느낌을 파악한다”라는 학습목표와 함께 ‘이 곡은 가단조의 화성 단음계 가락으로 이루어진 노래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여 따뜻한 해가 비치는 봄의 풍경을 고요하게 표현하였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신나는 리듬’ 단원에 실린 영국민요 <피크닉의 노래>도 제창곡으로 수록되어 있다. ‘신나는 리듬’이라는 단원에 맞추어 “당김음 리듬을 익히고, 신체 를 이용해 바르게 표현한다. 당김음이 사용된 노래에서 셈여림의 변화를 살려 노래 부른다”라는 학습목표로 다양한 리듬꼴의 당김음을 표현하고 구별해보며, 제시된 악보를 연습한 후 당김음을 살려 경쾌하게 연주해보도록 하고 있다.

도서출판 태성은 ‘사과의 폭을 넓혀’라는 대단원에 소단원인 ‘가락아 놀자’에서 프랑스민요 <작은 별>을 제창곡으로 실고 있으며, 마침꼴인 바른마침, 반마침, 벗어난 마침을 설명하고, <작은 별>의 마침꼴에서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을 확인·구별해보도록 하고 있다. 대단원 ‘내일을 향해’의 소단원 ‘함께 노래를’에서는 스코틀랜드민요 <아름다운 나의 벗>이 2부합창·합주곡으로 수록되어 있다. 변성기와 성부의 갈래·음역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두도막 형식(AB)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 성부의 흐름을 기억하고 암보한 후 지휘에 맞추어 리코더와 함께 연주·발표해보도록 한다.

(주)금성출판사는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단원에서 카리브해 지역의 민요 <흐르는 시냇물>이 “가락악기와 리듬악기의 음색을 느끼면서 함께 연주한다”를 학습목표로 하여,가락악기인 리코더와 리듬악기인 탬버린, 작은북, 캐스터네츠의 합주곡으로 실고 있다. <흐르는 시냇물>은 슬롭 존 비(Sloop John B)가 원곡 명이라는 참고사항 외에는 학습활동이나 학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단원의 ‘여러 나라의 자장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래 자장가, 러시아의 자장가, 중국의 자장가, 일본의 자장가>로 4개 국가의 자장가를 각 국의 원어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별 자장가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느낌

의 차이 등을 설명하거나 그에 맞도록 불러보는 활동은 제시하지 않고, 자장가의 역할과 자장가를 불러 주는 방법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자장가>외에 <플리스, 슈베르트, 브람스, 이흥렬, 김대현 자장가>등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어렸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자장가를 조사하고 친구와 노래해 보도록 하고 있다.

같은 단원에 수록된 뉴질랜드민요 <연가>는 돌림 노래로 “화음의 진행과 마침꼴의 특징을 이해하고 노래한다”라는 학습목표에 따라 제재곡의 조성인 사장조의 주요 3화음을 제시해 놓았고, 마침꼴의 종류로 바른 마침(정격 종지), 벗어난 마침(변격 종지), 속임 마침(허위 종지), 섞은 마침(혼합 종지)을 예시로 수록한 11곡의 악곡과 함께 이해시키고 있다. 제재곡의 화음 진행과 마침꼴을 이해하고 기타나 건반악기로 반주하면서 노래해보도록 하며, 제재곡을 2성부로 합창해보도록 한다. 한편, <연가>는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이 아니지만 마오리 족에 대한 소개와 사진을 실어 놓았으며, ‘이 노래는 <포카레카레(Pokarekare)>라는 뉴질랜드 마오리 족의 사랑 노래를 번안한 곡으로,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밝고 경쾌한 곡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라는 원곡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기에서는 원곡을 찾아 감상하고, 제재곡과 원곡을 비교해보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민요인 <할아버지 시계>는 리코더 2중주곡으로 수록되어, “리코더의 종류를 이해하고 연주자세와 운지법을 익힌다”라는 학습목표에 따라 소프라노 리코더의 연주법과 운지법 · 리코더의 종류를 사진으로 제시하고 연습곡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악기의 종류를 우리나라 악기와 외국 악기로 나누어 표로 분류해 놓았다.

(주)미래엔 컬처그룹에는 무려 6곡의 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지역의 민요가 실려 있다. 보헤미아 민요 <푸른 목장>은 부분 2부 합창곡으로 대

단원 ‘흥겨운 리듬 신명나는 장단’의 소단원인 ‘노래로 표현하는 신나는 리듬’에 수록되어 있다. “박자의 종류를 알고, 악곡의 특징적인 리듬을 살려 노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로, 음표와 쉼표, 2박· 3박· 4박계통 박자의 종류, 당김음을 이해시킨 후에, ‘당김음의 리듬을 살려 4/4박자의 악곡을 노래해 보자’라는 활동을 제시한다. 대단원 ‘어우러진 소리’의 소단원 ‘소리의 어울림’에 수록된 영국민요 <피크닉의 노래> 역시 부분 2부 합창곡으로,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를 살려 지휘에 맞추어 2부 합창곡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합창의 성부, 3화음, 지휘에 대해 학습한 후에 ‘성부간의 어울림에 유의하여 부분 2부 합창으로 노래해 보자’라는 활동이 제시된다. 또한 같은 단원의 보헤미아민요 <별을 보고>는 화성적인 성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둘 이상의 성부 중 주로 위 성부가 주된 가락을 담당함을 설명하며, ‘지휘에 맞추어 2부 합창으로 노래해 보자’라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단원 ‘다채로운 음빛깔’에 ‘여러 가지 빛깔의 목소리’라는 소단원에는 스위스민요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이 실려 있다. “악곡마다 다른 음색의 차이를 알고,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에 따라 성별, 창법, 장르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며, ‘요들(Jodel)’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요들송의 특징을 살려 경쾌하게 노래하고 2박자 지휘를 해 보자’라는 활동이 제시된다. 하지만 ‘요들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산악지방에서 불리는 민요이다. 낮은 흥성(가슴소리)과 높은 팔세토(가성)가 교차되는 창법으로, 즉흥적이고 흥을 돋우는 리듬과 가락을 사용하여 경쾌하게 부른다’라는 설명만이 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요들을 이해하고 요들송의 특징을 살려 노래하기는 어렵다.

같은 대단원 안에 소단원 ‘리코더 연주하기’에서는 “리코더의 종류와 음역

을 알고, 바른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로, 리코더 연주법, 소프라노 · 알토 리코더의 운지법과 함께, ‘미국민요 <언덕 위의 집>을 노래해 보고 소프라노 리코더로 연주해 보자’라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고곡이 수록되어 있는 ‘즐거운 노래’에, 뉴질랜드민요 <연가>가 학습목표나 학습활동 없이 악보만 실려 있다.

법문사에서는 2부 합창곡인 독일민요 <노래는 즐겁다>를 ‘음악과 자연’이라는 단원의 참고곡으로, 학습목표나 학습활동 없이 악보만 실어 놓고 있다. 성안당은 ‘아름다운 겨울의 노래’라는 단원에 영국민요인 <노엘>을 제창곡으로 수록하고 있다. <노엘>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중심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작은 음악회를 열어 발표한다”라는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캐럴의 분위기를 살려 노래해 보고, 리코더와 뮤직벨로 연주해 보자’라는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이나 학습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단원의 다른 제재곡인 <징글벨즈>에서는 ‘캐럴은 프랑스어 carole에서 온 말로 주로 중세 프랑스에서 둥근 원을 만들어 춤을 추었던 원무(圓舞)를 일컫던 말이었다. 즐거운 성격을 띤 종교적인 노래로 16세기 중엽부터는 특히 대중적인 크리스마스 노래를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캐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세광음악출판사에는 ‘노래 부르기 - 중창 · 합창’ 단원에 스위스민요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이 2부 합창곡으로 수록되어 있다. “선율과 화음을 이해하고 성부의 어울림을 들으며 중창 또는 합창을 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로, 선율과 화음, 목소리의 음역과 성부, 성악 · 합창 연주 형태를 설명하고 중창과 합창의 연주 형태를 알아보도록 한 후 합창 대열로 서서 노래해보도록 한다. 또한 ‘요들송에 대해 알아보고 경쾌하게 표현해 보자’라는 활동과 함께 아름다운 스위스 베르네의 숲 속 정취를 느껴보도록 한다. 하지만 요들송에 관한 설명 없이 직접 알아보도록 하고 있으며, 경쾌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나 표현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악기 연주하기 - 리코더 연주하기’에 리코더 2중주곡으로 수록 된 독일민요 <노래는 즐겁다>는 “바른 주법과 호흡으로 가락을 창의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호흡, 텅잉, 자세, 운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레가토(Legato), 스타카토(Staccato), 테누토(Tenuto)의 주법을 익혀 창의적으로 연습해보도록 한다. 또한 ‘경쾌하게 악기를 활용하여 모듬별로 연주해보고 노래도 불러보자’라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만, 악기의 종류나 배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현대음악은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요’라는 단원에 보헤미아 민요 <별을 보고>를 2부 합창곡으로 실고 있다. “악곡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한도막, 형식의 가락을 만든다”라는 학습목표로, ‘가단조,  $A(a+b)B(c+a)B(c+a)$ 의 도돌이표에 의한 세도막 형식으로 이루어진 보헤미아 지방의 서정적인 민요이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단조 음계에 대해 이해하고, 성부의 어울림에 유의하여 2부 합창으로 노래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단조의 음계와 건반, 가단조의 주요 3화음과 마침꼴 합창을 학습하는 활동과 음악의 구성요소(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와 악곡의 구성요소(마디, 동기, 작은악절, 큰악절)를 이해활동으로 제시한다. ‘간단한 형식의 노래 만들기’라는 창작활동에서는 말 리듬 만들기, 리듬에 맞추어 한도막 형식의 가락 만들기, 동기를 발전시켜 한도막 형식의 노래를 만들고 불러보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단원에 수록되어 있는 스코틀랜드 민요 2부 합창곡 <아름다운 나의 벗>은 “여러 가지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음악의 쓰임새에 대해 이해한다. 리코더를 바른 주법으로 연주한다”라는 학습목표와 함께 ‘친구들과의 우정을 노래한 곡으로  $A(a+a')B(b+a')$ 의 두도막 형식의

악곡이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과의 우정을 노래한 다른 곡들을 찾아 불러보도록 하고, 성부간의 어울림에 유의하여 2부 합창과 리코더 2중주를 해보도록 한다. 기악활동으로 '리코더 연주하기'에서는 리코더의 바른 연주 자세와 주법(호흡법, 텅잉, 자세, 입모양)에 대한 설명과 함께 리코더 운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으로 즐거워져요'라는 단원에는 독일민요 <노래는 즐겁다>가 실려 있다.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지휘법과 마침꼴을 이해한다"라는 학습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원은 세계민요를 학습하기 위한 단원이 아니다. 하지만 '농촌의 젊은이가 도시로 떠나는 마음을 표현한 독일 슈바벤 지방의 민요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는 즐겁다>로 번역되어 불리고 있다'라는 제재곡의 원곡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4/4박자의 리듬형을 만들어 여러 리듬악기로 반주하며 노래해 보도록 하고, 반마침과 바른 마침을 학습하여 제재곡에서 계속되는 느낌과 끝나는 느낌이 나는 곳을 찾아보도록 한다. 또한 지휘법을 익히고 지휘에 맞추어서 서로 협력하며 합창과 합주(작은북, 큰북, 피아노)를 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8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지역 민요의 학습 활동은 모두 다문화 음악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단원에서 일반적인 음악이해에 대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지역의 민요 중에서도 (주)금성출판사의 뉴질랜드민요 <연가>와 현대음악의 독일민요 <노래는 즐겁다> 2곡에서는 다문화적인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원곡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제시하고 있었다. (주)금성출판사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단원에 실린 뉴질랜드의 민요 <연가>는 '이 노래는 <포카레카레 (Pokarekare)>라는 뉴질랜드 마오리 족의 사랑 노래를 번안한

곡으로, 한 남자가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표현한 곡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밝고 경쾌한 곡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라는 원곡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며, 원곡을 찾아 감상한 후 번안곡과 원곡을 비교해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번안곡에 대한 설명과 마오리족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사진도 담아 놓았다. 또한 현대음악의 '음악으로 즐거워져요' 단원의 <노래는 즐겁다>에서는 원곡이 농촌의 젊은이가 도시로 떠나는 마음을 표현한 독일 슈바벤 지방의 민요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는 즐겁다>로 번역되어 불리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이 아니더라도 원곡에 대한 내용이나 배경 설명, 지역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준다면 더 의미 있는 음악교육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헤미아 민요를 학습할 때 '보헤미아는 체코의 서부 지역이다. 체코는 동부·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동부지역을 모라바(모라비아), 서부 지역을 체히라고 하는데, 체히를 라틴어나 영어로 보헤미아라 한다'라는 지역적 정보가 제시된다면 교육적인 효과와 함께 악곡을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4. 아시아민요 학습활동의 다문화반영여부 분석

##### (1) 8종 교과서 아시아민요의 다문화 반영여부 분석

<표-17> 아시아민요 분석기준표에 의한 분석 내용

분석요소	분석요소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출판사	아시아민요곡 명
활동 가창	그 나라 · 민족의 민요가 갖는 특징을 살려 노래 불러 보는가?	(주)금성출판사	<모리화>, <봉아완솔로>
		(주)미래엔 컬처 그룹	<안녕, 여름날, 소맥꽃, 코끼리 바나나, 풍년의 노래, 달아 달아, 모리화>, <아들아>
		성안당	<벚꽃>, <줍갈리>
		현대음악	<모리화>, <벚꽃>, <위스퀴다르>, <리디아 빠임 보>, <하바나길라>, <양거 춤추세>
	그 나라 · 민족의 언어인 원어로 노래 부르고 있는가?	도서출판 태성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주)금성출판사	<봉아완솔로>
		성안당	<모리화>, <벚꽃>
		세광음악출판사	<모리화>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가?	도서출판 태성	*<벚꽃> 제외
		(주)금성출판사	*<우스쿠다라, 꽃은지고, 보름달, 사쿠라 사쿠라>, <하바나길라> 제외
		법문사	*<우스쿠다라, 샬롬, 소맥꽃, 달아 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거 춤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 제외

		현대음악	*〈양거춤 추세〉를 제외한 39곡
	2부 합창으로 불러보는가?	도서출판 태성	*합창느낌 돌림노래〈돌아가리〉
		성안당	부분 2부 합창 〈내 어머니〉
기악	전통악기로 반주하거나 연주해보는가?	도서출판 태성	*가락악기 〈물에 비친 하늘〉
		(주)금성출판사	*리코더 〈봉아완 솔로〉
		현대음악	*탬버린 〈위스퀴다르〉
	전통악기 합주활동을 포함하는가?	.	.
창작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는가?	현대음악	<리디아 빠임 보>
	민요의 음계를 사용하여 가락짓기를 해보는가?	(주)금성출판사	<봉아완 솔로>
감상	다른 나라·민족의 문화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해보는가?	도서출판 태성	‘아시아민요’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민요 비교)
		법문사	<모리화-벚꽃>, ‘세계의 음악: 아시아 편’(아시아 여러나라의 민요, <우스쿠다라, 샬롬, 소맥꽃, 달아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거춤 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
		성안당	전통극(중국 경극-일본 가부키)
		현대음악	전통극(중국 경극-일본 가부키)
	*같은 나라 문화(비교하며 감상)	(주)금성출판사	<모리화>, <봉아완 솔로>
		성안당	<내 어머니>
		현대음악	<벚꽃>

		*다른 나라 문화 (감상활동 없이 비교)	도서출판 태성	<물에 비친 하늘-돌아가리> <달아 달아-꽃은 지고>
		*같은 나라 문화 (조사만)	성안당	<모리화>, <벚꽃>
	세광음악출판사		<모리화>, <벚꽃>, <즐거운 축제>	
	현대음악		<모리화>, <벚꽃>	
이 해	리듬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을 학습해보 는가?	성안당	<내 어머니>
	가 락	임시표를 포함하는 기락을 학습해보는가?	성안당	<내 어머니>
			민요의 음계를 학 습해 보는가?	도서출판 태성
		(주)금성출판사		<모리화>, <봉아완 솔로>
		법문사		<모리화>, <벚꽃>
	성안당	<모리화>, <벚꽃>, <춤갈리>		
음 색	여러 가지 전통악 기를 제시하고 음색 을 경험해보는가?	세광음악출판사	<즐거운 축제>	
생 활 화	다른 나라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을 서 로 비교하며 학습해 보는가?	도서출판 태성	*전통극(판소리, 창극-경극, 가부키)	
		법문사	우리나라-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악	
		성안당	‘생각하기’(<모리화>-우리나라 민요) *악기(중국악기-우리나라 악기) *악기(일본악기-우리나라 악기) 악곡(<벚꽃>-<무궁화>)	

		민요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리는지 제시되어 있는가?	더텍스트	<축복, 말씀을 나누세>
			(주)금성출판사	<꽃은 지고>, <보름달>
			성안당	<춤갈리>
			세광음악출판사	<모리화>
		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	.

※ 분석요소마다 해당되는 출판사와 민요의 제목(또는 단원의 제목, 학습활동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해당되는 출판사가 없는 분석요소는 [·]로 표기 하였으며, 분석요소와 비슷하거나 반대로 제시되어있는 내용은 [\*]로 표시한 후 작성하였다.

### (1) 더텍스트

‘생활 속의 음악’ 단원에서는 아시아민요 <무지개 자매, 축복 말씀을 나누세, 휴식, 반딧불아 오너라> 4곡을 한 개의 소단원에 수록하고 있다.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민요를 부르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학습목표를 가지며, 학습자료로는 각 나라의 국기와 함께 전통악기와 연주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곡마다 악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한글 가사 밑에 각 나라의 원어가사의 발음을 한글로 제시하여 좀 더 쉽게 다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어로 노래 불러보는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국민요 <무지개 자매>에서는 ‘이 곡은 3월에 사랑에 빠진 청년이 8월 중국 대보름 축제 때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아쉬움을 표현한 노래이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으로 중국의 대보름 축제에 대해 알 수 있고, 8종 교과서에 유일하게 실려 있는 중앙아시아민요인 키르기스스탄민요 <축복 말씀을 나누세>에서도 ‘이슬람교의 전통 행사인 라마단의 마지막 날에 집에 들

어가기 전 부르는 노래로 축복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키르기스스탄이 이슬람 국가이며, 이슬람의 전통행사인 라마단이 있다는 키르기스스탄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더 텍스트는 ‘악곡 길잡이’에 제재곡에 대한 설명과 그 나라의 축제나 풍습을 소개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민요를 부르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학습목표 외에 다른 학습활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 텍스트에서는 아시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음색’이란 단원의 제재곡 <들장미>에서 ‘서양 성악곡의 종류’로 민요, 오라토리오, 예술 가곡을 설명하고 있다. 민요는 모든 민족에게 구전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악이지만 서양 성악곡의 한 종류로 왜곡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4곡의 아시아민요가 실려 있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수록된 4곡의 아시아민요 모두가 8종 교과서에 한 곡씩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곡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

## (2) 도서출판 태성

도서출판 태성은 대단원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의 소단원 ‘한국과 이웃 나라의 전통 극음악’에서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단가에 대해 알아보고 판소리와 창극으로 <흥부가의 박타는 대목>을 듣고 차이점을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이 후에는 ‘더 해보기’라는 활동으로 이웃 나라(중국, 일본)의 극음악을 알아보고, 판소리 및 창극과 구별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중국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실고 있으며, 다른 나라 친구에게 판소리와 창극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써 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전통 극음악을 비교하며 공

통점과 다른 점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극음악인 판소리와 창극을 다른 나라 친구에게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래의 여러 모습’이라는 대단원의 소단원 ‘아시아의 민요’에서는 아시아 민요 5곡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달아 달아, 꽃은 지고, 벚꽃>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민요에 대해 ‘오랫동안 불러 온 노래는 그 지역의 특징적 감성을 담고 있으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노래와 함께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라는 설명과, 학습자료 IV 21-25가 제시되어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민요를 찾아 감상하고 색다르게 느껴지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5곡 모두 한글가사와 함께 한글로 쓴 원어발음, 작은 삽화로 지도와 각 국 여인들의 전통의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에는 중앙·남부·동부아시아 지역의 위치가 적혀있다.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과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에서는 노래에 사용된 음들을 각각 음계로 만들어 두 곡의 구성음과 음계가 다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음계를 모음으로 불러보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후 두 곡을 익히고 한글로 쓴 원어발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며, <물에 비친 하늘>을 가락 악기로 연주해 보고, <돌아가리>는 합창의 느낌이 나도록 돌림 노래로 불러보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물에 비친 하늘>을 가락 악기 중 어떠한 악기로 연주해보면 좋을지 또는 중국의 전통악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돌아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돌림노래를 부를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인도민요 <달아 달아>와 필리핀민요 <꽃은 지고>는 각각 노래를 불러보고 노래의 흐름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음계는 같은 F장조이지만 구성음이 다르고, 리듬은 비슷하지만 <달아 달

아>는 당김음이 <꽃은 지고>는 점음표의 리듬이 섞여 있으며, 전반적인 음역이 다르다'라는 설명을 제시하며 인도와 필리핀민요를 비교해보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벚꽃>은 노래 부르거나 음계 익히기, 다른 민요와 비교해보는 등의 학습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단원의 마지막에 제시된 '다지기'라는 학습활동에서는 모듈별로 아시아의 관심 있는 한 나라를 정한 후,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조사하여 음악 소개와 함께 발표해 보도록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출판 태성은 다른 출판사와 달리 <물에 비친 하늘>과 <돌아가리>, <달아 달아>와 <꽃은 지고>를 두 곡씩 묶어 두 나라의 민요를 비교하는 학습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로서 민요가 그 지역마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 (3) (주)금성출판사

'다른 나라의 음악' 단원에는 <모리화>, <봉아완 솔로>, <우스쿠다라(나의 시인)>, <꽃은 지고>, <보름달, 사쿠라 사쿠라>, <하바 나길라>로 모두 7곡의 아시아민요가 실려 있다. <하바 나길라>를 제외한 모든 곡에 원어가사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가 쓰여 있고 노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나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모리화>는 “제재곡의 구성음을 이해하고, 중국민요의 특징을 생각하며 노래한다”라는 학습목표로, 제재곡이 나오는 음들을 표시하여 음계를 이해하고 노래해 보도록 하고 있지만, 중국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에 관련된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모리화”는 자스민꽃으로 예

로부터 중국 동부 해안지역인 ‘강소 지방’은 차로 이용하는 자스민 꽃이 많이 피던 곳이다’, ‘강소 지방’의 ‘한(漢)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모리화 민요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이다’라는 곡의 배경과 ‘모리화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라는 곡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한족’이라는 종족과 ‘강소 지방’이라는 지역을 접하고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인이 부르는 <모리화>를 듣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래해 보는 활동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민족이 직접 부르는 민요를 듣고 특징을 따라 부르도록 하는 활동은 다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주)금성출판사의 특별한 점이다. 중국의 여러 민요(태호선, 만리장성, 초원 정가, 고산청 등)를 찾아 감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곡이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1막에 사용되고 있음과 투란도트의 작곡가, 대본, 오페라의 내용, 작품의 시대와 장소, 초연날짜와 장소, 연주시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란도트>에 사용된 제재곡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붕아완 솔로>는 “제재곡의 리듬과 음계를 익히고 그 특징을 살려 표현한다”라는 학습목표를 갖고 있지만, 앞에 수록 된 중국민요 <모리화>와 동일하게 인도네시아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에 관련된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곡의 음계를 이해하여 주어진 리듬에 맞게 가락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 리듬을 익혀 특징을 살려 노래해 보도록 하고 있으며, 원어가사,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와 함께 한글로 번역한 가사의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다. 번역한 가사의 내용으로 곡을 이해하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원어로 불러보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한 후에는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의 민요(내 어머니, 라사 사양계 등)를 찾아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이 곡에는 ‘인도네시아의 고유한 선율과 서구적인 선율이 잘 어울리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대표적인 민요로, 붕아완 솔로는 ‘솔로’라는 도시를 가로 질

러 흐르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강의 이름이다’라는 설명으로 곡의 특징과 지역적인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인형극인 세계 무형 유산 ‘와양’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실려 있고, 전통 음악인 ‘가믈란’에 대한 설명과 전통악기의 연주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봉아완 솔로>에서는 제재곡의 음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 음계를 사용해 주어진 리듬으로 한 도막 형식의 가락을 만들어보는 학습활동으로, 세계 민요 학습활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창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계로 사용되는 음을 보여주고 리듬을 정해놓아 어렵지 않게 가락짓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4/4박자 한도막 형식의 곡 8마디 중 4마디는 가락을 제시하고 나머지 4마디를 가락짓기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마디는 음계의 마침음인 계이름 ‘도’를 온음리듬 제시하여 제재곡의 음계와 마침음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민요 특유의 느낌을 살려 가락짓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자신이 만든 가락을 리코더로 연주해 보는 기악활동이 이루어진다.

소단원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래’에서는 <우스쿠다라, 꽃은 지고, 보름달, 사쿠라 사쿠라>로 4곡의 아시아민요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곡마다 나라에 대한 소개와 4개 국가의 전통춤, 전통놀이, 전통악기 연주, 전통축제의 사진과 함께 노래에 대한 배경, 언제 · 어디에서 불려 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원어가사,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가 함께 쓰여 있다. 하지만 아시아민요를 불러보거나 원어로 노래해 보는 등의 학습목표나 학습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터키민요 <우스쿠다라>에는 ‘1900년대 터키의 유행가로 미국에서 에디 고르메(Edie Gorme)에 의해 터키어와 영어로 첫 음반이 취입된 후에 꾸준히 불렸으며, 이후 에르타 키트(Earta Kitt)의 <우스쿠다라>가 인기를 얻으

며 터키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스쿠다라는 터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이름이다'라는 지역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꽃은 지고>에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놀이노래로, 이 노래에 맞추어 술래가 나와 혼자 춤을 추고 엉덩이로 다음 술래를 가리키면 다음 노래가 시작되며 반복된다'라는 필리핀의 전통놀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고, 태국 민요 <보름달>에는 '태국에서 음력 8월에 열리는 '로이 크라통'이라는 축제에서 부르는 노래로, 이 축제는 지난해의 나쁜 기억과 경험 등을 잊기 위해 열리며 친구,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둥근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으며 달을 기린다'라는 태국의 축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리핀의 전통놀이와 태국의 축제, 태국인들의 정서,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 등 태국의 문화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다. <사쿠라 사쿠라>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옛 노래로 반응이 있는 5음 음계를 사용하며,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제 1막에 삽입되어 더욱 유명해졌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이 곡은 (주)금성출판사에서만 <사쿠라 사쿠라>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출판사에서는 모두 <벚꽃>이라는 제목으로 실고 있다.

(주)금성출판사는 46-47쪽에서 다른 나라의 전통악기를 대륙별(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중·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만, 악기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진으로만 소개하고 있고, 단원의 마무리 노래로 수록되어 있는 <하마 나길라>는 한글가사만 쓰여 있을 뿐 학습 목표나 학습활동 없이 악보만 제시되어 있다.

#### (4) (주)미래엔 컬처그룹

(주)미래엔 컬처그룹의 특별한 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이라는 대단원에 우리나라 각 지방의 민요와 아시아민요가 함께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카리나와 비슷한 악기로 우리나라의 전통악기 훈과 헝가리의 민속악기 코카리나를 소개하는 선택 학습만이 있을 뿐 각각의 제재곡마다 학습활동이 따로 제시되어있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민요가 갖는 특징을 찾아보거나 우리나라 민요와 아시아민요를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단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에 소단원 ‘노래로 하나 되는 세상’에는 “아시아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로, <안녕(Shalom), 여름날, 소맥꽃, 코끼리 바나나, 풍년의 노래, 달아 달아, 모리화> 7곡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자연을 소재로 한 가사에 5음 음계를 많이 사용하며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민요는 종교적인 특색을 갖는다’라는 아시아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7개국 각 나라의 국기와 지도에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 악곡마다의 특징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과 원어가 사가 실려 있지 않고, ‘아시아민요를 불러보고 지도에서 여러 나라의 위치를 알아보자’라는 학습활동 외에 다른 학습활동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안녕, 여름날, 소맥꽃, 코끼리 바나나, 풍년의 노래, 달아 달아, 모리화>와 같은 단원에 수록된 필리핀민요 <아들아(Anak)>는 같은 학습목표를 가지며, ‘필리핀민요의 정서를 느끼며 바른 발성으로 노래해 보자’라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가사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 제시와 함께, ‘필리핀민요는 씩씩한 모습과 동시에 애수에 넘치는 다양한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아들아>는 ‘프레디 아길라’에 의해 대중가요로 다시 불리면서 필리핀 내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번안되어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다. ‘Anak’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이’ 혹

은 ‘자녀’를 뜻하는 말이다’라는 곡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미래엔 컬처그룹은 8곡이라는 많은 수의 아시아민요가 수록되어 있지만, 아시아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지도에서 여러 나라의 위치를 알아보며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 학습활동과 함께 제재곡 <아들아>에서 ‘필리핀민요의 정서를 느끼며 바른 발성으로 노래해 보자’라는 학습활동과 필리핀민요의 특징, 곡에 대한 설명, 한글로 쓴 원어발음을 제시한 것 외에는 다른 학습활동이나 학습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5) 법문사

‘아시아의 음악과 문화 이해하기’를 학습중점으로 두고 있는 대단원 ‘음악과 세계 -아시아 편-’에는 “중국과 일본의 민요를 부르고 감상한다”는 학습목표 아래 제재곡으로 중국민요 <모리화>가, 비교곡으로는 일본민요 <벚꽃>이 수록되어 있다. 두 곡 모두 원어는 제시되지 않고 한글가사만 쓰여 있으며, 참고학습으로 <모리화>와 <벚꽃>의 악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모리화>는 ‘중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강소성(江蘇省)’에 전하는 노래로 ‘한(漢)민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모리화 중에서 가장 친숙한 곡이다. 모리화란 자스민 꽃이라는 의미로, 이 노래는 꽃을 하나 꺾어 머리에 꽂을까 말까 하는 소녀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중국의 ‘강소성(江蘇省)’이라는 지역과 ‘한(漢)민족’이라는 종족을 경험할 수 있다. <벚꽃>에서도 “에도시대(1603~1967)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가 <나비 부인>의 제1막에 삽입하기도 하였다’라는 곡에 대한 소개로 ‘에도시대’라는 일본의 역사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활동으로는 <모리화>를 음미하며 불러본 후 <벚꽃>을 감상하게 하고, 일본 음계

에는 양선법과 음선법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중국민요와 일본민요에 사용된 음계를 알아보고 비교해보도록 하며, 중국민요와 일본민요를 비교·감상해보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이해’ ‘아시아의 민속 악기’에서는 중국(비파, 금, 슬), 일본(샤미센, 와곤), 인도네시아(가믈란 악기), 인도(탐부라, 시타르), 타이(라닛 에크), 몽골(모링호르)의 민속 악기를 소개하고 있다. 각 악기의 사진과 함께 악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으며, ‘생활화’ ‘아시아 음악을 이해하기’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나라의 위치, 수도, 민족, 국기, 기후, 문화와 풍습 등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 나라의 국가, 전통 음악, 대중음악을 조사하며,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 교류의 현장을 찾아가 보아 지역 축제에서 일어나는 음악 공연을 감상하도록 한다. 그 후에는 다른 나라 음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음악과 비교해 보도록 하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움 자료로는 중국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실려 있다. 이처럼 범문사는 중국과 일본의 민요를 비교해보고, 나아가 아시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음악을 비교해보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악 감상’ ‘세계의 음악: 아시아 편’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를 감상하고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라는 ‘감상 Point’와 ‘민요에는 그 나라의 풍토, 생활 습관, 민족의 특성 등이 고유의 가락과 리듬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아시아민요들은 서양음악에 사용되는 장음계나 단음계를 사용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독특한 음계를 사용하며, 서양음악과는 달리 화성적이지 않고 선율적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의 민요는 다양한 종류의 5음계가 사용되는 단성음악으로, 지역별로 뚜렷한 특징

을 보인다'라는 아시아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시아민요 8곡 <우스쿠다라, 샬롬(안녕), 소맥꽃, 달아 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거춤 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를 감상곡으로 실고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있고, 각 악곡별로 국기와 전통악기·연주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각 곡에 대한 설명이나 원어가사가 실려 있지 않고, 앞서 전체곡과 세계민요곡의 활동영역별 악곡 수의 분석 내용에서 언급한대로 아시아민요를 감상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적합하고 감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자료는 수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주)미래엔 컬처그룹에 수록된 스리랑카민요 <안녕(Shalom)>과 다른 <샬롬(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어 두 곡이 같은 곡임에도 다른 곡인 것처럼 혼동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탐구 활동으로 필리핀 전통의상 사진과 함께 우리나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음악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 인도네시아, 타이, 필리핀, 몽골, 조선족을 제시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를 찾아보도록 하며 중국민요 <무지개 자매>,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 일본민요 <냄비, 밀바닥 없는 냄비>, 인도민요 <디왈리 노래>를 예로 들고 있다.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 기억해야 할 부분을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면서 중국의 악기, 몽골의 악기, 아시아의 민요를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으며, 모리화 8마디 선율을 오선에 그려보도록 하고 있다.

## (6) 성안당

성안당에서는 아시아민요를 '이웃 나라의 민요와 음악극'과 '아시아의 민요' 두 개의 대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웃 나라의 민요와 음악

극' 단원에서는 “중국과 일본민요의 특징을 살려 원어가사로 노래한다. 이웃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하고 음악극을 감상한다. 중국과 일본의 전통악기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악기와 비교해 본다”라는 단원 목표를 갖고, 제창곡으로 중국민요 <모리화>와 일본민요 <벚꽃>을 수록하고 있다. 먼저 <모리화>는 “가사의 느낌을 살려 원어로 노래한다. 중국민요의 음계와 전통악기를 알아본다”라는 학습목표에 각 나라의 국기와 함께 원어가사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가 실려 있고, 4개의 단어를 원어로 제시하여 발음과 뜻을 익힌 후 원어로 노래해 보도록 한다. ‘생각하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양음악은 7음 음계, 동양음악은 5음 음계를 사용하고 중국의 민요인 <모리화>도 5음 음계를 사용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5음 음계가 사용된 <모리화>와 우리나라 민요가 어떠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나라의 악기(얼후와 해금, 금과 거문고)에 대한 설명, 악기와 연주사진을 수록하여 비교해보도록 하고, 중국의 다른 전통악기(예: 디즈)와 5음 음계를 사용하는 중국의 다른 민요를 찾아 적어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리화는 재스민꽃을 가리키며, 이 노래는 중국 동부 지역인 ‘강소성’의 ‘한(漢)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여러 <모리화> 중 가장 친숙한 곡이다’라는 설명으로 ‘강소성’이라는 지역과 ‘한족’이라는 민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의 5중주 단원들이 두타, 박판, 지, 생, 비파를 연주하는 그림과 모리화의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도서출판 태성은 이웃 나라(중국, 일본)의 극음악과 우리나라의 판소리 및 창극과의 구별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고,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과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 인도민요 <달아 달아>와 필리핀민요 <꽃은 지고>에서 중국과 이스라엘 민요, 인도와 필리핀민요를 비교해보도록 하고 있으며, 법문사에서는 <모리화>와 <벚꽃>에서 중국민요와 일본민요에 사용된

음계를 비교한 후 중국민요와 일본민요를 비교 · 감상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음악을 비교해보도록 하는 활동이 나타나, 모두 다른 나라의 음악을 비교하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통악기를 비교해보도록 하는 활동은 성안당에서만 볼 수 있다.

<벚꽃>은 “악곡의 특징을 살려 원어로 노래한다. 일본민요의 음계와 전통악기를 알아본다”라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악곡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에 관련된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리화>와 같이 각 나라의 국기와 함께 원어가사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가 실려 있고, 3개의 단어를 원어로 제시하여 원어발음과 뜻을 알아본 후 원어로 노래하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벚꽃>에 사용된 5음 음계와 일본음악에서 널리 쓰이는 전통악기인 고토와 사미센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 거문고와 가야금의 줄 받침대인 안족(雁足)과 사미센의 줄 받침대인 주(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다른 전통악기(예:사쿠하치, 히치리키)를 찾아보도록 하고, 무궁화와 벚꽃의 사진과 함께 일본의 국화인 벚꽃의 꽃말과 느낌을 생각해 보며, 일편단심의 꽃말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에 관한 노래(예: <무궁화> 김한배작사, 정세문 작곡, <무궁화> 박종오 작사, 함이영 작곡)를 찾아 불러보도록 한다. 또한 일본민요 <벚꽃>이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의 몇 막에 삽입되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이해 · 감상’의 ‘이웃 나라의 음악극’에서는 “경극과 가부키에 대해 알아본다. 중국과 일본의 음악극을 비교하며 감상한다”라는 ‘감상요점’으로 동아시아의 전통 음악극인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에 대해 각각 극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비교해보고, 경극과 가부키를 인터넷을 통해 감상한 후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극과 가부키의 특징과 배역 ·

반주악기 · 분장과 배역의 성격의 연관을 설명하고 있으며, 전통 음악극의 연주사진들을 함께 실어 놓았다. 또한 참고 사이트로 주한 중국 문화원과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 문화원의 인터넷 주소를 함께 제시하여, 아이들이 직접 검색해본다면 문화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제시된 것 외에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 단원 평가하기에서는 ‘우리나라 해금의 현은 명주실이다. 중국 얼후의 현은 무엇인지 적어 보자’, ‘일본 샤미센의 줄 받침대인 주(柱)와 비슷한 우리나라 가야금의 줄 받침대는 무엇인지 적어보자’로 앞서 있었던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를 비교해보는 학습활동을 확인해보고 있다.

‘아시아의 민요’ 단원에는 “인도네시아의 민요를 불러 보고, 가믈란 합주를 감상한다. 서남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민요를 불러본다. 동남아시아의 전통악기를 알아본다”라는 단원 목표와 함께 제창곡으로 인도네시아민요 <내 어머니>와 2부 합창곡으로 이스라엘민요 <줌갈리>가 수록되어 있다. <내 어머니>는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분 2부로 합창하도록 한다. 타악 합주로 널리 알려진 가믈란에 대해 알아본다”라는 학습목표로, 악곡에 나타난 주요 리듬꼴과 반복되는 리듬의 가락을 익혀보도록 하는 일반적인 음악이론에 대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질 뿐, 인도네시아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관련된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기는 실려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이나 악곡에 대한 설명이 없고, 원어가사도 제시되지 않는다. ‘가믈란’에 대한 학습활동은 ‘우리나라의 사물놀이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타악 합주’라는 가믈란에 대한 소개와 악기 편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주사진을 수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여러 지방의 가믈란을 찾아 감상해 보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줌갈리>는 ‘오스티나토 성부와 가락 성부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2부 합창곡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스티나토와 가락의 조화를 살려 노래한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재미있게 불러본다”라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곡의 특징이 이스라엘민요가 갖는 특징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국기와 함께 가락성부에는 한글가사가 쓰여 있고, 오스티나토 음형에는 ‘Zum gali’라는 가사가 적혀있는데, ‘줌 갈리는 ‘일하러 가세’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일터로 갈 때 즐겨 부르던 노래이다’라는 악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활동으로는 오스티나토의 음형에 대해 알아보고 악곡에 사용된 구성음으로 음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며, 알바브레베가 2/2박자라는 설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음악과 음악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며, 이스라엘민요는 음악적 감정을 표현함은 물론 국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공연장, 가정, 키부츠(Kibbutz:이스라엘의 농업 및 생활 공동체)의 공동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피아노, 아코디언, 기타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악적 성향과 이스라엘의 농업 및 생활 공동체인 키부츠에 대해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음악가로 지휘자 바렌보임(아르헨티나 태생 이스라엘인)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자크 펠만(이스라엘계 미국인)을 소개하고 있다. 단원 평가하기에서는 ‘가물란 합주에 사용되는 관악기를 적어보자’, ‘오스티나토를 정확하게 노래해 보자’, ‘알바브레베는 몇 박자인지 적어보자’를 제시하여 가물란에 사용된 관악기를 적어보는 평가 외에는 다문화 음악교육과 별 관련이 없는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감상’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에서는 감상 요점으로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아시아민요를 불러 보자”라는 가창활동의 학습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는 세계 육지 면적의 30%,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큰 대륙으로, 문명의 발상지인 고대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이 모두 아시아지역에 속해 있다’라는 아시아지역의 특징과, ‘주로 단선율의 가락이며 반음보다 더 작은 미분음의 장식이 많고, 2+3박 등의 혼합박자가 많으며, 느리게 시작해 점점 빨라지고, 주로 구전되며 즉흥 연주가 많다’라는 아시아 음악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아시아민요 6곡인 <위스퀴다르, 달아 달아, 찬 말리 찬,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의 밤의 노래, 아리산의 아가씨>가 수록되어 있다. 6곡은 각각 터키민요 <위스퀴다르>, 인도민요 <달아 달아>, 싱가포르민요 <찬 말리 찬>, 베트남민요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민요 <몽골의 밤의 노래>, 대만 민요 <아리산의 아가씨>로, 8종 교과서 중 대만과 싱가포르의 민요는 단 한 곡씩 수록되어 있어, 성안당의 <아리산의 아가씨>와 <찬 말리 찬>은 곡의 특수성을 갖는다. 악곡마다 각 나라의 국기가 실려 있고 한글로 쓴 원어발음과 함께 한글가사가 적혀있는데, <찬 말리 찬>에는 한글로 쓴 원어발음과 함께 한글가사가 아닌 원어발음 그대로를 영어로 써놓은 가사가 적혀있어 가사의 내용이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지도에는 각 국의 위치와 함께 대만, 대한민국,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의 대표적인 민요 2-3곡의 제목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아시아민요를 불러보자”라는 감상 요점 외에는 감상을 위한 학습활동이나 학습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성안당의 아시아민요 학습활동에서는 중국, 일본의 전통악기와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를 비교하고, 5음 음계가 사용된 <모리화>와 우리나라 민요가 어떠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국화

인 벚꽃의 꽃말과 느낌을 생각해 보며 일편단심의 꽃말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에 관한 노래를 찾아 불러보도록 하고, 중국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민족의 악기·노래, 다른 나라의 전통극을 서로 비교해보도록 하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내 어머니>의 학습활동은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분 2부로 합창하고, 악곡에 나타난 주요 리듬꼴과 반복되는 리듬의 가락을 학습하는 일반적인 음악이론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기는 실려 있지만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이나 악곡에 대한 설명이 없고 원어가사도 제시되지 않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접하는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 (7) 세광음악출판사

대단원 ‘노래 부르기’에 소단원인 ‘다른 나라(아시아) 민요 부르기’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악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노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와 함께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태국의 음악적 특징을 지도, 국기와 함께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민요 <모리화>와 일본민요 <벚꽃>을 수록하고 있다.

<모리화>에는 ‘자스민 차가 많이 나던 중국 ‘강소 지방’에서 찻잎을 따며 불렀던 두 박자계의 ‘노동요’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넓은 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라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강소 지방’이라는 지역과 <모리화>가 중국인들이 찻잎을 따며 부르던 ‘노동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글로 쓴 원어발음과 함께 한글가사가 실려 있어 반복해서 불러 보고 중국어로도 외워 노래해 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국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로 발표해 보도록 한다.

<벚꽃>에서는 ‘벚꽃은 ‘사쿠라’라고 부르며, 4-5월에 분홍 또는 흰색의 꽃이 핀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의 국화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어가사나 악곡에 대한 학습자료가 수록되어있지 않고, ‘활짝 핀 벚꽃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껴보자’라는 활동 외에 다른 학습활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전통공연 예술인 ‘가부키’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한다.

베트남민요 <즐거운 축제>는 ‘각 나라별 축제와 관련된 음악을 생각해 보자’라는 활동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래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음악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전통악기로 9월 중순 가을 전통 마을 축제에 쓰이는 북인 ‘테트룽’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9월 중순 가을에 베트남의 전통 문화인 마을 축제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곡의 가사 내용 중 ‘통인각’의 ‘통인’은 베트남 의성어로 ‘통’은 북의 가운데를 칠 때, ‘인’은 북의 가장자리를 작게 칠 때, ‘각’은 북의 가장자리 나무틀을 칠 때 나는 소리이다’ 라는 설명을 제시하여 전통악기의 음색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벚꽃>과 같이 원어가사나 악곡에 대한 설명, 다른 학습활동은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아시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이 아닌 ‘악기 연주하기’라는 대단원에 소단원인 ‘드럼 연주하기’에는 제재곡 <김치 주제가>가 수록되어 있다. <김치 주제가>에서는 ‘여러 가지 타악기의 음색을 이해하고 음악에 어울리게 연주해 보자’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타악기 중 전통악기인 ‘기로’를 ‘속이 빈 나무통에 톱니 모양을 만들어 굽어서 소리 내는 타악기’, ‘콩가’를 ‘음높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북으로 소리 내는 캐나다 민속 악기’라고 설명하며 이와 함께 악기를 그림으로 제시하여 소개하고 있다.

세광음악출판사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습활동이 매우 간단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음악의 활용’이라는 대단원에서 소단원인 ‘음악

과 생활’, ‘음악과 다른 예술 · 학문과의 관계’, ‘노래로 배우는 음악 이론’, ‘알기 쉬운 우리나라 음악’, ‘음악의 생활화’로 음악의 이해요소에 대한 학습 활동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단원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민요의 학습활동도 매우 간단하거나 적게 제시되고, 학습자료는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세광음악출판사는 학습활동과 학습자료가 적은 현상과 함께 아시아민요를 3곡만 제시하고 있어,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곡의 비율이 8종 교과서 중 가장 낮게 나타난다.

### (8) 현대음악

‘음악으로 아시아를 여행해요’ 단원은 ‘미리 생각해 보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의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를 노래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와 다른 아시아민요들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제재곡에서 이에 관련된 학습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음악과 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아시아 여러 나라 민요의 특징을 알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 부른다”라는 단원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만, 악곡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에 관련된 학습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단원에는 중국민요 <모리화(茉莉花)>, 일본민요 <벚꽃(さくらさくら)>, 터키민요 <위스퀴다르(Üsküdar)>, 베트남민요 <리 디아 빠임 보(Lí dĩa bánh bò)>, 이스라엘민요<하바 나길라(Hava Nagila)>, 인도네시아민요 <양거춤 추세>로 모두 6곡의 아시아민요가 수록되어 있다. 참고곡으로 실려 있는 <양거춤 추세>를 제외한 5곡의 민요에 각 나라에 대한 소개와 나라에 관련된 사진, 원어가사와 함께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를 실고

있고, 6곡의 모든 민요는 8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곡의 제목을 원어로 제시하고 있다.

<모리화>는 ‘중국 동부에서 전해 내려오는 노래로, 꽃을 꺾어 머리에 꽂을지 말지 고민하는 소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곡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한 축제와 축제에 쓰이는 음악 및 춤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고, 춘절-사자춤·단오절-용춤·원소절-등불 축제의 사진을 실어놓아 중국의 전통 축제를 경험해 볼 수 있다.

<벚꽃>은 ‘에도 시대’부터 전해 온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로, 오페라 <나비 부인>의 제 1막에 삽입된 노래이다’라는 설명을 제시하여, 일본의 역사적 배경인 ‘에도 시대’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악기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기악곡을 들어 본 후에 곡의 느낌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며, 샤쿠하치, 코토, 샤미센의 연주 장면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위스퀴다르>는 ‘사랑하는 남자가 지나가는 길에 손수건을 흘려 사랑을 고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곡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같은 단원에 수록된 제재곡 5곡이 동일하게 신고 있는, 나라에 대한 소개와 관련된 사진 외에는 다른 학습활동과 학습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악보에는 탬버린의 리듬 반주를 함께 신고 있는데, 탬버린이 전통 악기를 대신해서 사용되었는지 또는 터키의 전통악기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 이러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음악교육에 더욱 적합한 학습활동이 될 수 있다.

<리 디아 빠임 보>는 ‘빵 접시를 들고’라는 뜻의 베트남 남쪽 지방의 전통적인 민요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다른 교과서의 학습활동과는 달리 모두 별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나 설화 등을 찾아보고, 그 이야기를 음

악으로 표현해보도록 하고 있다. 모듬원의 의견을 모아 이야기 중에서 연주할 장면을 고르고, 해설자, 연주자 등 필요한 역할을 분담한 후,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표현하여 모듬별로 발표하고 서로의 연주를 평가하도록 한다. 창작활동의 소재인 베트남의 전래 동화나 설화 등을 찾아보면서 음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해 볼 수 있고, 나아가 그 이야기를 내면화하여 음악으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 음악교육에 적합한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바 나길라(Hava Nagila)>는 ‘이스라엘의 정열적인 민요로 ‘하바’는 감탄사로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나길라’는 ‘우리 기뻐하자’ 라는 뜻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민요 <하바 나길라>에 맞추어 민속춤을 배워보고 취보도록 하고 있다. <하바 나길라>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 참고곡 <양거춤 추세>는 한글가사만 실려 있고, 학습활동이나 학습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감상’ ‘중국과 일본의 극음악’에 “경극과 가부키를 감상해보고,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감상요점’으로 ‘중국의 극음악인 경극은 중국의 전통 종합 예술극이다. 노래, 대사, 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영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짧고, 배역은 크게 주인공, 여자, 악한, 어릿광대 및 단역으로 나뉜다. 진한 화장과 화려한 의상으로 등장인물의 특징을 표현한다’라는 경극에 대한 설명과 ‘일본의 극음악인 가부키는 17세기에 생긴 종합 예술극으로 동작과 무대 효과가 매우 화려하다. 여자의 배역도 분장한 남자 배우가 맡고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얼굴에 하얀 분칠을 한 배우들이 등장하며, 평균 4-5시간 정도의 공연 시간을 갖는다’라는 가부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경극과 가부키의 연주사진, 경극 배우들의 분장 모습, 가부키의 공연 포스터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학습정리 및 학습평가에

서는 ‘모듬별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음악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아시아 각 나라의 민요를 불러 본 후, 악곡의 특징을 잘 살렸는지 평가해 보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문화 행사에 참여해 보자’로 아시아민요의 학습활동을 통해 폭넓은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현대음악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나 설화 등을 찾아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이스라엘의 민요 <하바 나길라>에 맞추어 음악 외에 이스라엘 문화인 민속춤을 배우고 취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하도록 함으로서, 다른 출판사에서 볼 수 없는 창의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5. 아시아민요 학습활동의 다문화반영여부 분석 결과

아시아민요 분석요소와 내용에 대한 기준표인 <표-10>을 통해 분석한 중학교 8종 교과서에 수록된 아시아민요 학습활동 분석내용을 분석요소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가창활동 영역인 “그 나라 · 민족의 민요가 갖는 특징을 살려 노래 불러 보는가?”에 대한 분석요소에는, (주)금성출판사의 중국민요 <모리화>에서 “제재곡의 구성음을 이해하고, 중국민요의 특징을 생각하며 노래한다”라는 학습목표와 ‘중국인이 부르는 <모리화>를 듣고 유사한 방식으로 노래해 보자’라는 학습활동이, 인도네시아민요 <붕아완 솔로>에서는 “제재곡의 리듬과 음계를 익히고 그 특징을 살려 표현한다”라는 학습목표가 나타났다. 성안당에서도 일본민요 <벚꽃>에서 “악곡의 특징을 살려 원어로 노래한다”라

는 학습목표가, 이스라엘민요 <춤갈리>에서 “악곡의 특징을 살려 재미있게 불러본다”라는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춤갈리>에는 ‘오스티나토 성부와 가락 성부로 이루어진 재미있는 2부 합창곡이다’, “오스티나토와 가락의 조화를 살려 재미있게 불러본다”라는 설명과 학습목표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곡의 특징이 이스라엘민요가 갖는 특징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언급은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현대음악에서도 <모리화>, <벚꽃>, <위스퀴다르>, <리디아 빠임 보>, <하바나길라>, <양거춤 추세>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 민요의 특징을 알고, 악곡의 특징을 살려 노래부른다”라는 단원목표가 나타나, (주)금성 출판사와 성안당, 현대음악에서 모두 10곡의 아시아민요가 “그 나라 · 민족의 민요가 갖는 특징으로 노래 불러보는가?”에 대한 분석요소에 해당됨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10곡은 모두 각 나라와 민족의 민요가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달리 (주)미래엔 컬처그룹에는 <안녕, 여름날, 소맥꽃, 코끼리 바나나, 풍년의 노래, 달아 달아, 모리화>가 “아시아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로, ‘자연을 소재로 한 가사에 5음 음계를 많이 사용하며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민요는 종교적인 특색을 갖는다’는 아시아민요의 특징과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각 악곡마다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실려 있지 않았다. 같은 단원에 실려 있는 필리핀민요 <아들아(Anak)>에서는 ‘필리핀민요는 씩씩한 모습과 동시에 애수에 넘치는 다양한 정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필리핀민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리핀민요의 정서를 느끼며 바른 발성으로 노래해 보자’라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성안당에서는 <위스퀴다르, 달아 달아, 찬 말리 찬,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의 밤의 노래, 아리산의 아가씨> 6곡에서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

고, 아시아민요를 불러 보자”라는 학습목표와 아시아지역과 아시아 음악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악곡마다 각 나라의 국기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과 한글가사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도에는 각 국의 위치와 함께 대만, 대한민국,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의 대표적인 민요 2-3곡의 제목이 수록되어 있었지만 아시아 음악의 특징에 대한 설명 외에 각 나라·민족의 민요가 갖는 특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 나라·민족의 언어인 원어로 노래 부르고 있는가?”의 분석요소에 대해서 더텍스트는 수록된 <무지개 자매, 축복 말씀을 나누세, 휴식, 반딧불아 오너라> 4곡에 한글가사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원어로 노래 부르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도서출판 태성에서도 수록된 5곡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달아 달아, 꽃은 지고, 벚꽃>에 모두 한글가사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을 실어놓았지만,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두 곡에서만 곡을 익힌 후 원어발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였고 나머지 3곡은 원어로 노래 부르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주)금성출판사는 마무리 노래인 이스라엘민요 <하마나길라>를 제외한 중국민요 <모리화>, 인도네시아민요 <봉아완 솔로>, <우스쿠다라, 꽃은 지고, 보름달, 사쿠라 사쿠라>에서 원어가사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원어로 노래 부르는 활동은 <봉아완 솔로>에서만 이루어졌다. <봉아완 솔로>는 한글로 번역한 가사의 내용까지 제시하여 곡의 이해를 돕고 있었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원어로 불러보도록 하였다.

(주)미래엔 컬처그룹에서는 <안녕, 여름 날, 소맷꽃, 코끼리 바나나, 풍년의 노래, 달아 달아, 모리화>에 원어가사나 한글로 쓴 원어발음 없이 한글가사만 쓰여 있었고, 필리핀민요 <아들아>에서는 원어 없이 한글가사와 함께 한글로 쓴 원어발음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원어로 노래 부르는 활동은 역

시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범문사는 수록 된 모든 아시아민요에 원어가 사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성안당은 중국민요 <모리화>와 일본민요 <벚꽃>에 원어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를 제시하고 있었지만, <위스퀴다르, 달아 달아, 찬 말리 찬,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의 밤의 노래, 아리산의 아가씨> 6곡에는 한글가사와 함께 한글로 쓴 원어발음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중 <모리화>와 <벚꽃>에서 중요한 3-4개의 단어를 제시하고 원어의 발음과 뜻을 익힌 후 원어로 노래해 보도록 하였지만, <위스퀴다르, 달아 달아, 찬 말리 찬,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의 밤의 노래, 아리산의 아가씨> 6곡에서는 원어로 불러보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세광음악출판사에서는 중국민요 <모리화>에 한글로 쓴 원어발음과 한글가사가 실려 있어 반복해서 불러본 뒤 중국어로 외워서 노래 해보도록 하고 있었지만, 일본민요 <벚꽃>, 베트남민요 <즐거운 축제>에는 원어가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음악은 <모리화>, <벚꽃>, <위스퀴다르>, <리디아 빠임보>, <하바나길라>에 원어가사,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를 모두 수록하였고, 유일하게 제목을 원어로도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어로 노래 부르는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참고곡인 <양거춤 추세>는 한글가사만 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 수록된 53곡의 아시아민요 중 30곡의 아시아민요에 원어가사가 제시되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원어로 직접 노래 부르는 학습활동은 단 6곡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가?”는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 수록된 53곡의 아시아민요 중 38곡의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서출판 태성의 일본민요 <벚꽃>, (주)금성출판사의 <우스쿠다라, 꽃은 지고, 보름달, 사쿠라 사쿠라>, 이스라엘민요 <하바나길라>와 범문사의 <우스쿠다라,

샬롬, 소맥꽃, 달아 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거춤 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 현대음악의 인도네시아민요 <양거춤 추세>로 모두 15곡의 아시아민요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15곡 중 (주)금성출판사의 이스라엘민요 <하바나길라>와 현대음악의 인도네시아민요 <양거춤 추세>는 참고곡으로 수록되어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않았고, 법문사의 <우스쿠다라, 샬롬, 소맥꽃, 달아 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거춤 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는 감상활동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한편 도서출판 태성은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달아 달아, 꽃은 지고, 벚꽃>으로 하나의 소단원에 5곡의 민요가 함께 실려 있어,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달아 달아, 꽃은 지고>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지만 <벚꽃>은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주)금성출판사의 <우스쿠다라, 꽃은 지고, 보름달, 사쿠라 사쿠라>도 하나의 소단원에 4곡의 민요가 함께 실려 있어 각 곡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노래에 대한 설명, 전통악기 연주와 전통춤, 전통 축제에 대한 사진 외에는 어떠한 학습목표나 학습활동도 제시되어있지 않았다.

이렇듯 하나의 소단원에 4-8곡의 많은 아시아민요가 함께 수록된 단원을 6개의 출판사 더텍스트, 도서출판 태성,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법문사, 성안당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단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비롯한 학습활동이 부족하게 됨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한 깊이 있는 다문화 교육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더 텍스트는 ‘생활 속의 음악’ 단원에서 아시아민요 <무지개 자매, 축복

말씀을 나누세, 휴식, 반딧불아 오너라> 4곡을 한 개의 소단원에 수록하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의 민요를 부르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학습목표를 가지며, 학습자료로는 각 나라의 전통악기와 연주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각 곡마다 악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한글가사 밑에 각 나라의 원어가사의 발음을 한글로 제시하여 좀 더 쉽게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민요를 부르며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라는 학습목표 외에는 원어로 노래 불러보는 활동 등의 어떠한 학습활동도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도서출판 태성은 ‘아시아의 민요’라는 소단원에서 아시아민요 5곡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달아 달아, 꽃은 지고, 벚꽃>을 민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수록하고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민요를 감상하여 색다른 느낌을 알아보도록 하며, 5곡 모두 한글로 쓴 원어발음과 작은 삽화로 지도와 각국의 여인들의 전통의상 그림을 제시하였다.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과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에 사용된 음계를 모음으로 불러보고 두 곡을 익힌 후 한글로 적어놓은 원어발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였으며, <물에 비친 하늘>을 가락 악기로 연주해보고, <돌아가리>는 합창의 느낌이 나도록 돌림 노래로 불러보게 하였다. 또한 인도민요 <달아 달아>와 필리핀민요 <꽃은 지고>는 각각 노래를 불러 보고 인도와 필리핀민요를 비교해보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음계는 같은 F장조이지만 구성음이 다르고 리듬은 비슷하지만 <달아 달아>는 당김음이 사용되고 <꽃은 지고>는 점음표의 리듬이 섞여 있으며, 전반적인 음역이 다르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물에 비친 하늘, 돌아가리, 달아 달아, 꽃은 지고>는 비교적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곡인 일본민요 <벚꽃>은 노래 부르거나 음계 익히기, 다른 민요와 비교해보는 등의 학습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

다.

(주)금성출판사에서는 ‘다른 나라의 음악’ 단원에 <우스쿠다라(나의 시인), 꽃은 지고, 보름달, 사쿠라 사쿠라> 모두 4곡의 아시아민요가 함께 수록되어 있었다. 앞서 “아시아민요를 불러보는가?”의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이 단원에서는 각각의 곡마다 나라에 대한 소개와 함께 노래에 대한 배경, 언제 · 어디에서 불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전통놀이와 전통악기 연주, 전통춤, 전통축제에 대한 사진과 함께 원어가사, 한글로 쓴 원어발음, 한글가사가 수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외에 다른 학습목표나 학습활동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주)미래엔 컬처그룹은 소단원 ‘노래로 하나 되는 세상’에서 “아시아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로, <안녕, 여름날, 소맥꽃, 코끼리 바나나, 풍년의 노래, 달아 달아, 모리화> 7곡을 함께 수록하고 있었다. 아시아민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7개국 각 나라의 국기와 지도에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만, 각 악곡마다의 특징이나 배경에 대한 설명과 원어가사가 실려 있지 않았고, ‘아시아민요를 불러보고 지도에서 여러 나라의 위치를 알아보자’라는 활동 외에는 다른 학습활동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법문사는 ‘음악 감상’ ‘세계의 음악: 아시아 편’이라는 소단원에서 아시아 민요 8곡 <우스쿠다라, 샬롬(안녕), 소맥꽃, 달아 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겨춤 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를 함께 수록해놓았다. 이 8곡에는 아시아의 민요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악곡별 나라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각 나라의 국기와 전통악기 · 연주사진을 함께 실고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를 감상하고, 그 특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본다”라는 ‘감상 Point’와 아시아민요에 대한 설명 외에는 어떠한 학습활동도,

감상을 위한 학습자료도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성안당에서는 ‘감상’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에서 <위스퀴다르, 달아 달아, 찬 말리 찬, 어린이들의 축제, 몽골의 밤의 노래, 아리산의 아가씨> 6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감상학습인데도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아시아민요를 불러 보자”라는 가창활동의 학습목표를 제시하였고, 아시아지역과 아시아 음악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악곡마다 각 나라의 국기와 한글로 쓴 원어발음과 한글가사가 적혀있었다. 또한 지도에는 각 국의 위치와 함께 대만, 대한민국,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의 대표적인 민요 2-3곡의 제목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아시아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고 아시아민요를 불러보자”라는 ‘감상요점’ 외에는 감상을 위한 학습활동이나 학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2부 합창으로 불러보는가?”의 분석요소에 대해서는 2부 합창곡은 아니었지만 도서출판 태성의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에서 합창의 느낌이 나도록 돌림노래로 불러보는 학습활동이 나타났고, 성안당의 인도네시아민요인 <내 어머니>에서는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분 2부로 합창하도록 제시하고 있었다.

“전통악기로 반주하거나 연주해보는가?”에 대한 기악연주 활동은 모두 전통악기를 활용한 활동이 아니라 리코더나 탬버린의 가락악기와 리듬악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출판 태성에서는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에서 가락 악기가, (주)금성출판사의 인도네시아민요 <봉아완 솔로>에서 리코더, 현대음악의 터키민요 <위스퀴다르>는 탬버린이 사용되었다.

한편 세광음악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모든 교과서 제재곡에 각 나라 전통악기의 사진과 연주사진이 학습자료로 수록되어 있었지만, 사진이 제시된 것 외에는 어떠한 학습활동도 제시되지 않아 전통악기를 깊이 있게 학습하

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했다. 특히, (주)금성출판사와 법문사는 전통악기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별도로 두었지만, (주)금성출판사 46-47쪽, 다른 나라의 전통악기에 각 대륙별 전통악기의 사진을 수록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전통악기를 알아본다”라는 ‘학습요점’외에 다른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고, 법문사는 96쪽, 아시아의 민속 악기에서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타이, 몽골의 악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주로 악기의 재료, 구조, 연주방법, 편성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악기의 구체적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사진만이 제시되어 있어 악기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통악기 합주활동을 포함하는가?”에 대한 학습활동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영역별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곡에서의 창작활동 비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는가?”, “민요의 음계를 사용하여 가락짓기를 해보는가?”라는 세계민요에서의 다문화요소와 관련된 창작활동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처럼 다문화요소에 관련된 창작활동은 단 두 곡의 세계민요 학습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주)금성출판사의 인도네시아민요 <붕아완 솔로>에서 제재곡의 음계를 이해하고 그 음계를 사용해 곡의 주어진 리듬으로 한 도막 형식의 가락을 만들어보는 창작활동과 현대음악 베트남민요 <리 디아 빠임 보>의 학습활동에서 모듈별로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래 동화나 설화 등을 찾아보고,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해보도록 하는 창작활동이었다.

(주)금성출판사의 인도네시아민요 <붕아완 솔로>는 제재곡의 음계를 제시하고, 4/4박자 한도막 형식의 곡 8마디 중 4마디는 가락을 제시하고 나머지 4마디를 가락짓기 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한 음계에는 마침음을 표시해 두었으며 마지막 마디는 음계의 마침음인 계이름 ‘도’를 온음표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민요의 음계와 마침음의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인도네시아민요 특유의 느낌을 살려 가락짓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음계로 사용되는 음을 보여주고 정해진 리듬을 제시해놓아 어렵지 않게 가락짓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현대음악 베트남민요 <리 디아 빠임 보>에서는 모듬원의 의견을 모아 이야기 중에서 연주할 장면을 고르고, 해설자, 연주자 등 필요한 역할을 분담한 후,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표현한 다음 모듬별로 발표하고 서로의 연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베트남의 전래 동화나 설화 등을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음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해 볼 수 있고, 나아가 그 이야기를 내면화하여 음악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창작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감상활동의 “다른 나라 · 문화의 민요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해보는가?”에 대한 분석요소에 대해서는 도서출판 태성의 ‘아시아의 민요’라는 단원에서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민요를 감상하여 각 민요마다의 색다른 느낌을 알아보도록 하는 감상활동으로 나타났다. 법문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민요를 부르고 감상한다”는 학습목표 아래 제재곡으로 중국민요 <모리화>가, 비교곡으로는 일본민요 <벚꽃>이 수록되어 참고학습으로 <모리화>와 <벚꽃>의 악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었고, <모리화>를 음미하며 불러본 후 <벚꽃>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본 음계에는 양선법과 음선법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중국민요와 일본민요에 사용된 음계를 알아보고 비교해보도록 하였으며, 중국민요와 일본민요를 비교 · 감상해 보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세계의 음악: 아시아 편’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요를 감상하고 그 특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본다”라는 ‘감상 Point’와 함께 <우스쿠다라, 샬롬(안녕), 소맥꽃, 달아 달아, 몽골의 밤의 노래, 양거춤 추세,

꽃은 지고, 어린이들의 축제>로 8곡의 아시아민요를 감상곡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성안당의 ‘이웃 나라의 음악극’에서는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하며 감상하는 학습활동으로, 경극과 가부키의 배역, 반주 악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경극과 가부키에서 극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비교해 본 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하고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음악은 ‘감상’ ‘중국과 일본의 극음악’에서 “경극과 가부키를 감상해 보고,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감상요점’을 가지고 경극에 대한 설명과 가부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극과 가부키의 연주사진, 경극 배우들의 분장모습, 가부키의 공연 포스터 사진을 수록하고 있었다. 또한 제시한 4개의 출판사 외에는 다른 나라·문화의 민요나 전통극을 감상활동 없이 비교해보는 활동이나 같은 나라의 민요나 기악곡을 찾아 감상해 보는 활동이 있었다. 또한 같은 나라의 문화, 악기, 전통을 조사만 하는 학습활동도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나라·문화의 민요를 비교하며 감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의 민요나 기악곡을 찾아 비교하고 감상해 보는 학습활동에는 (주)금성출판사의 중국민요 <모리화>에서 중국의 여러 민요(태호선, 만리장성, 초월 정가, 고산청 등)를 찾아 감상하도록 하였고, 인도네시아민요 <붕아완 솔로>에서도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의 민요(내 어머니, 라사 사양계 등)를 찾아 감상하도록 하였다. 성안당 또한 인도네시아민요 <내 어머니>에서 인도네시아 여러 지방의 가믈란을 찾아 감상해 보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활동이 있었고, 현대음악의 일본민요 <벚꽃>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악곡을 감상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였다.

다른 나라·민족의 민요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해 보는 학습활동 외에 다

른 나라의 민요와 전통극을 감상활동 없이 서로 비교해보는 학습활동도 볼 수 있었다. 도서출판 태성의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과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에서 노래에 사용된 음들을 각각 음계로 만들어 두 곡의 구성음과 음계가 다름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각각의 음계를 모음으로 불러보는 활동이 있었다. 또한 인도민요 <달아 달아>와 필리핀민요 <꽃은 지고>는 음계는 같은 F장조이지만 구성음이 다르고, 리듬은 비슷하지만 <달아 달아>는 당김음이 <꽃은 지고>는 점음표의 리듬이 섞여 있으며, 전반적인 음역이 다르다는 설명과 함께 각각 노래를 불러 보고 노래의 흐름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한편 같은 나라의 민요, 악기, 음악, 문화, 전통공연을 조사만 해보는 학습활동도 있었다. 성안당은 중국민요 <모리화>에서 중국의 다른 전통악기(예:디즈)와 5음 음계를 사용하는 중국의 다른 민요를 찾아 곡 제목을 적어 보도록 하고 있었고, 일본민요 <벚꽃>에서는 일본의 다른 전통악기(예:사쿠하치, 히치리키)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세광음악출판사는 중국민요 <모리화>에서 다양한 중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일본민요 <벚꽃>에서는 일본의 전통공연 예술 ‘가부키’에 대해 조사해보도록 하였으며, 베트남민요 <즐거운 축제>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래를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음악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음악은 중국민요 <모리화>에서 중국의 유명한 축제와 축제에 쓰이는 음악 및 춤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고 있었고, <벚꽃>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악기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안당과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은 같은 문화권의 악기나 음악, 전통공연을 조사하여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은 있었지만, 조사한 자료를 통해 어떠한 학습활동을 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반적인 음악 이해요소로 “여러 가지 박자의 리듬꼴을 학습해보는가?”,

“임시표를 포함하는 가락을 학습해보는가?”에는 성안당의 <내 어머니>에서 악곡에 나타난 주요 리듬꼴을 학습하고, 반복되는 리듬의 가락과 변화된 가락을 찾아 그려보도록 하며 내림나장조의 가락을 익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음악이론 이해에 대한 학습활동이 제시되어 있었다.

“민요의 음계를 학습해보는가?”에 대한 분석요소에는 도서출판 태성의 중국민요 <물에 비친 하늘>과 이스라엘민요 <돌아가리>에서 사용된 음들을 각각 음계로 만들어 두 곡의 구성음과 음계가 다를 수 있도록 하며 모음으로 불러보게 하는 학습활동이 있었다. (주)금성출판사에는 중국민요 <모리화>에서 사용되는 음들을 표시하여 음계를 이해한 후 노래해 보도록 하였으며, 인도네시아민요인 <붕아완 솔로>에서는 “제재곡의 리듬과 음계를 익히고 그 특징을 살려 표현한다”라는 학습목표로 곡의 음계를 이해하고 주어진 리듬에 맞게 가락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창작활동이 함께 나타났다.

법문사에서는 제재곡 <모리화>와 비교곡인 <벚꽃>에 사용된 중국과 일본의 음계를 알아보고 비교해보도록 하였고, 일본 음계에는 양선법과 음선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성안당의 <모리화>는 “중국민요의 음계와 전통악기를 알아본다”라는 학습목표와 함께 ‘생각하기’에서 ‘일반적으로 서양음악은 7음 음계, 동양음악은 5음 음계를 사용하고 중국의 민요인 <모리화>도 5음 음계를 사용한다’라는 설명을 제시하였고, <벚꽃>에서는 “일본민요의 음계와 전통악기를 알아본다”라는 학습목표로 <벚꽃>에 사용된 5음 음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였으며, <쥬갈리>에서는 악곡에 사용된 구성음으로 음계를 만들어 보는 활동이 이루어져, 3개의 민요에서 각각의 곡에 사용된 음계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전통악기를 제시하고 음색을 경험해보는가?”에 대한 분석요소로는 세광음악출판사 베트남민요 <즐거운 축제>에서 전통악기로 9월 중순

가을 전통 마을 축제에 쓰이는 북인 ‘테트룽’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곡의 가사 내용 중 ‘통인각’의 ‘통인’은 베트남 의성어로 ‘통’은 북의 가운데를 칠 때, ‘인’은 북의 가장자리를 작게 칠 때, ‘각’은 북의 가장자리 나무틀을 칠 때 나는 소리이다’라는 설명으로 전통악기의 음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나라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을 서로 비교하며 학습해보는가?”의 분석요소에 대해서는 (주)미래엔 컬처그룹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이라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인 ‘노래로 하나 되는 세상’에서 제재곡으로 우리나라의 각 지방의 민요와 아시아민요를 같은 단원 안에 함께 수록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제재곡마다의 학습활동이 각각 제시되어 서로 다른 문화권의 민요가 갖는 특징을 찾아보며 우리나라 민요와 아시아민요를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학습활동이 없었다.

이러한 반면에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전통극, 음악, 민요, 악기를 비교해 보는 학습활동이 있었다. 도서출판 태성에서는 대단원 ‘한국과 이웃 나라의 전통 극음악’에서 우리나라의 판소리 · 단가 · 창가와 이웃 나라(중국, 일본)의 극음악인 경극과 카부키에 대해 알아본 후, 판소리 및 창극과 구별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범문사는 생활화 ‘아시아 음악을 이해하기’에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 나라의 위치, 수도, 민족, 국기, 기후, 문화와 풍습 등을 알아보고, 그 나라의 국가, 전통음악, 대중음악을 조사하며, 문화 교류의 현장을 찾아가 보아 지역축제에서 일어나는 음악공연을 감상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 다른 나라 음악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음악과 비교해 보도록 하는 학습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성안당은 ‘이웃 나라의 민요와 음악극’이란 단원에 수록된 <모리화>의

‘생각하기’에서 ‘일반적으로 서양음악은 7음 음계, 동양음악은 5음 음계를 사용하고 중국의 민요인 <모리화>도 5음 음계를 사용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5음 음계가 사용된 <모리화>와 우리나라 민요가 어떠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악기(얼후와 해금, 금과 거문고)에 대한 설명하고 악기와 연주사진을 수록하여 두 나라의 악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였고, <벚꽃>에서는 일본 음악에서 널리 쓰이는 전통악기인 고토와 사미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거문고와 가야금의 줄 받침대인 안족(雁足)과 사미센의 줄 받침대인 주(柱)에 대한 도움말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무궁화와 벚꽃의 사진과 함께 일본의 국화인 벚꽃의 꽃말과 느낌을 생각해 보며, 일편단심의 꽃말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에 관한 노래(예: <무궁화> 김한배작사, 정세문 작곡, <무궁화> 박종오 작사, 함이영 작곡)를 찾아 불러보도록 하였다.

“민요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리는지 제시되어 있는가?”의 분석요소는 해당 민족의 삶을 반영하는 민요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다문화적인 요소로 더텍스트의 키르기스스탄민요 <축복 말씀을 나누세>에서 “이슬람교의 전통 행사인 라마단의 마지막 날에 집에 들어가기 전 부르는 노래로, 축복 말씀을 서로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설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복 말씀을 나누세>가 키르기스스탄 이슬람의 전통행사인 라마단에 다녀온 후 집에 들어가기 전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금성출판사의 필리핀민요 <꽃은 지고>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놀이노래로 이 노래에 맞추어 술래가 나와 혼자 춤을 추고 엉덩이로 다음 술래를 가리키면 다음 노래가 시작되며 반복된다’라는 설명으로 <꽃은 지고>가 필리핀의 전통놀이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태국민요 <보름달>은 ‘태국에서 음력 8월에 열리는 ‘로이 크라통’이라는 축제에서 부르는 노래로, 이 축제는 지난

해의 나쁜 기억과 행사 등을 잊기 위해 열리며 친구,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둥근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으며 달을 기린다'라는 설명을 제시하여, <보름 달>이 태국의 축제인 '로이 크라통'에서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안당의 이스라엘민요 <쥬갈리>에서는 '쥬 갈리는 '일하러 가세'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일터로 갈 때 즐겨 부르던 노래이다'라는 악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일터로 갈 때 즐겨 부르던 노래라는 악곡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고, 세광음악출판사의 중국민요 <모리화>는 '쟈스민 차가 많이 나던 중국 강소 지방에서 찾았을 따며 불렀던 두 박자계의 노동요이다'라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의 분석요소는 사회적 ·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이해력을 신장시키도록 하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지도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민족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는 민요와 사회는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8종 교과서의 아시아민요 학습활동에서 단 한 번도 찾아 볼 수 없었다.

## IV. 결 론

이 연구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8종의 중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 다양한 나라와 문화권의 세계민요가 수록되어 있는지, 아시아민요의 학습활동이 그 시대와 나라, 민족의 문화를 반영하여 다문화주의 교육에 적합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 7학년 활동영역 내용에서 명시한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대로 세계민요 대부분의 곡이 아시아민요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역과 악곡의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55곡의 아시아민요 중 이스라엘 7곡, 일본과 중국 9곡씩, 터키는 6곡이 수록된 반면 대만과 스리랑카, 싱가포르, 키르기스스탄, 태국의 민요는 8종 교과서 중 각각 단 한 곡만이 실려 있다. 또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국가로 많은 민요가 수록되어 있었지만, 서아시아는 수록된 13곡의 민요가 2개의 국가의 민요만으로 이루어져 많은 수의 민요가 실려 있을 뿐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스탄 1곳에 1곡의 민요만 실려 있어 가장 적은 수의 민요가 수록되었다.

악곡의 편중현상으로는 8종 교과서에 모두 9곡이 실려 있는 일본민요 중 <벚꽃>이 도서출판 태성, (주)금성출판사, 법문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 6곳의 출판사에 실려 있었고, 중국도 총 9곡 중 <모리화>가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법문사, 성안당, 세광음악출판사, 현대음악 6곳의 출판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터키는 총 6곡 중 <우스쿠다라>가 (주)금성출판사, 법문사, 성안당, 현대음악 4곳의 출판사에 수록되

어 있었다.

아메리카대륙 역시 북아메리카의 미국민요 2곡만을 수록하고 북아메리카의 멕시코와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민요는 단 한 곡도 실지 않아 지역적인 편중현상을 볼 수 있었고, 아프리카민요는 단 한 곡도 수록되지 않았다. 2곡의 민요가 수록되어있는 오세아니아는 두 곡 모두 뉴질랜드민요 <연가>를 실고 있어 지역적인 편중현상과 함께 악곡의 편중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와 달리 유럽은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의 민요가 각각 4곡, 6곡, 6곡씩 실려 있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둘째, 아시아민요는 모두 세계민요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실려 있는데 반해 각 교과서마다 주로 1, 2곡씩 실려 있는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의 민요는 모두 다 세계민요 학습활동과 관련 없는 단원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민요 중에서도 (주)금성출판사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단원에 실린 뉴질랜드의 민요 <연가>와 현대음악의 ‘음악으로 즐거워져요’ 단원의 <노래는 즐겁다>에서는 다문화적인 학습목표나 학습활동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원곡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셋째, 전체곡에 대한 세계민요곡의 비율은 법문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성안당> (주)금성출판사> 현대음악> 도서출판 태성> 더 텍스트> 세광음악출판사 순으로 나타났다. (주)금성출판사, 성안당, (주)미래엔 컬처그룹, 법문사에서는 20%가 넘는 비율로 세계민요곡을 실고 있는데 비해, 더텍스트는 12.8%, 세광음악출판사 10.6%로 다른 출판사보다 세계민요곡이 비교적 적게 수록되어 있었다.

넷째, 8종 교과서의 전체곡과 세계민요의 제재곡과 참고곡의 수를 분석한 결과, 더텍스트, 도서출판 태성, 세광음악출판사는 세계민요의 모든 곡인 100%가 제재곡으로 수록되어 있었고, (주)미래엔 컬처그룹 92.9%, 성안당

90.9%, 법문사 81.8%, 현대음악 88.9%로 4종 교과서의 세계민요에서도 제재곡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금성출판사의 세계민요곡은 수록로 4종 중 4곡이 제재곡으로, 9곡이 참고곡으로 실려 있어 참고곡의 비율이 69.2%로 나타나 제재곡의 비율인 30.8%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8종 교과서 중 (주)금성출판사의 세계민요곡을 제외한 7종 교과서의 전체곡과 세계민요곡 모두 제재곡의 비율이 참고곡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한 전체곡의 제재곡 비율보다 세계민요의 제재곡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세계민요를 학습영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가창영역의 비율이 더 텍스트 100%, (주)미래엔 컬처그룹 96.4%, 세광음악출판사 90%, (주)금성출판사 88.5%, 현대음악 78%, 성안당 72.7%로 도서출판 태성과 법문사를 제외한 세계민요 학습활동의 대부분이 가창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계민요의 창작활동은 (주)금성출판사와 현대음악을 제외한 다른 출판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도서출판 태성과 법문사, 성안당은 아시아민요를 감상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도서출판 태성을 제외한 법문사와 성안당에서는 감상활동에 적합한 학습자료를 수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세계민요는 세계민요의 그 나라나 민족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악기를 활용한 활동이 아니라 리코더나 작은북, 탬버린, 캐스터네츠 등의 가락 악기와 리듬악기를 사용한 연주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섯째,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8종의 중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에는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과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원어가사가, 수록된 53곡의 아시아민요 중 법문사를 제외한 7개 출판사 30곡의 아시아민요에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원어로 직접 노래 부르는 학습활동은 6곡뿐이었다. 또한 교육과정에 따라 아시아민요가 많이 수록되어 있긴 하지만, 더 텍스트, 도서출판 태성,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법문사, 성안당은 특별한 학습활동 없이 단순히 제재곡만 제시하여 다양한 경험을 통한 깊이 있는 다문화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대륙별 다양성만이 아니라 대륙별 분류 안에서의 국가별 다양성도 반영되어야 하며, 악곡의 차별화와 다양성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세계민요 학습을 ‘다른 나라 노래(아시아) 부르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민요 부르기’로 제시한다면 이러한 지역별 편중현상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노래 부르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세계민요가 계속해서 교과서에 실리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악곡의 편중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 음악의 활발한 연구로 각 국가·민족을 대표하여 그들의 정서와 문화가 반영되고, 문화적·역사적·예술적·교육적 가치를 고루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민요도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요는 구전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음악으로 세계민요의 학습활동이 가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통 음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전통악기가 함께 다루어져야 하고, 그 나라·민족의 음악 외의 다른 문화나 민요의 음계를 이용한 창작활동으로 그 특징적인 느낌과 정서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나라·민족의 다른 음악을 감상해보도록 하고, 우리나라의 민요와 세계민요를 비교해보거나 다른 나라의 민요들을 서로 비교·감상해보도록 하여 단순한 가창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영역으로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되도록 교사는 교과서의 부족한 내용을 융통성 있게 재구성하고, 철저한 수업계획과 학습자료로 보완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넓은 시야와 포용력으로 다른 학문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 분야의 과목(지리, 역사, 사회, 미술, 외국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좀 더 다양한 문화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인 다문화 음악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란의 민요를 학습할 때 서남아시아에 대한 설명으로 “서남아시아 지역은 지형적으로 북부와 남부에 고원을 이룬 곳이 많고,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의 평야나 해안의 저지대가 있다. 지리적 위치는 동양과 서양의 중간으로 동서 문명의 교류지, 동서 상품의 교환지로서 예로부터 많은 교역 도시를 발달시켰다. 기후는 고온 ·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고 사막과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들은 주로 해안 지역과 사막의 오아시스에 모여 살고 있으며, 유목 생활을 했지만 석유가 발견되어 이를 수출하면서 넓은 도로와 공장이 들어서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전 세계 석유의 70% 이상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유의 3/4을 이 지역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지만 종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지역적 요소인 지리 과목, 대륙에 관한 정보인 사회과목과 함께 연계하여 수업한다면 더욱 큰 교육적 효과와 함께 그 나라의 배경과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고 경험하게 되어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폭넓고 다양한 수업자료와 체계적인 교재제작과 함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교수법과 수업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른 나라 · 민족의 생활 방식들(예: 사회적 상황, 언어, 관습, 풍속 등)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관심의 대

상은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연수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 특히 음악교사를 위해서는 음악이 만들어진 문화적 배경에 대한 분석, 음악과 문화의 다른 분야(종교 · 극 · 무용 · 경제 · 정치 등)와의 관련여부, 음악의 용도와 기능, 음악가의 사회적 역할과 신분 등 다문화음악에 대한 연구와 자료개발, 더불어 다문화 음악수업 설계에 대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광주: 한솔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I) 총론, 특별 활동. 광주: 한솔사.
- 권덕원 외 3명. 2006.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류용재 · 김덕모. 2008. 소통하는 문화기획론. 경기: 한국학술정보.
- 민경훈 외 11명. 2009. 21세기 음악교육학 총론.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 민경훈 외 11명. 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배화여자대학 유아교육과. 2008. 다문화 교육의 실제. 서울: 다음세대.
- 유네스코 · 아시아 ·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광주: 동녘.
- 주대창. 2007. 음악학 개론. 서울: 태성.
- Banks, James A. 2008. 모경환 외 3인 역.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Martiniello, Marco. 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서울: 한울.
- Merriam, Alan P. 2000. 박미경 역. 탈 서양 중심의 음악학. 서울: 동아시야.

## 2. 학술 연구지

- 권덕원. 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제 2호.

- 민경훈. 2004. “상호문화적 음악교육의 의미와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음악과 민족. 제 28호.
- 박미경. 2002. “세계음악연구와 교육의 기반조성연구”. 「음악과 문화」 제 6호. 대구: 세계음악학회.
- 옥경희 외 1인. 2009.08.17. 광주광역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 윤희원 외 5인. 2008. 인권 관점에서 다문화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지선, 조효임. 2004. “월드뮤직의 수용과 다문화적 음악교육에 관한 초·중등교사의 의식연구”. 한국음악연구. 제 35집. 서울: 한국국악학회.

### 3. 학위논문

- 조현진. 2008.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실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 최은영. 2004.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다문화주의 반영분석. 석사학위논문. 목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 4.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정보자료실. 2010.10.15.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국내 행사 창의 · 인성 교육 학술대회 Program II.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외국인주민 89만명, 전년도 대비 23.3% 증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07.29.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 전년도 대비 24% 증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 8. 5.  
<http://ko.wikipedia.org/wiki/>

# ABSTRACT

## The Analysis of World Folk Songs in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Kang Eun-Kyung  
Music Education Majo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8 first grade middle school music textbooks for their gathering of world folk songs of various countries and cultural areas according to the revised music curriculum of 2007, and to find the appropriateness of world folk song academic activities as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that heightens musical understanding 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by reflecting the era's cultures of nation and people.

In order to achieve such goals, world folk song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by continent, country and tunes, and proportions of musical pieces and reference songs in all songs and world folk songs were examined then analyzed by learning areas of singing, instrumental music, creation and listening. Lastly, using the standard table of Asian folk song analysis elements and contents, the

relevancy of Asian folk songs in the units that study world folk songs as proper academic activities for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was inquired int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accordance with "singing songs of other countries (Asia)" stated in seventh grade activity content of 2007's revised music curriculum, most of world folk songs consisted of Asian folk songs. However, unequal distribution of regions and tunes was noted.

Second, all Asian folk songs were contained in the unit that learns about world folk songs, whereas all folks songs of America, Europe and Oceania, which often have one or two songs contained in each textbook, were presented in units that were unrelated to academic activities.

Third, the proportions of world folk songs in all songs were ranked in the order of Bobmunsa > Mirae-n Culture Group Inc > Sungandang > Kumsung publishing company Inc > Hyundai Music > Taesung book publishing > The Text > Sekwang Music. Bobmunsa displayed the highest proportion at 28.2 percent, and Sekwang Music displayed the lowest world folk songs gathering proportion at 10.6 percent.

Fourth, the analysis of all songs and world folk song's musical pieces and reference songs displayed a higher proportion of world folk song's musical pieces than all songs' musical pieces.

Fifth, the analysis of world folk songs by learning area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academic activities consisted of singing

activities, and the weight of world folk song singing activities was much higher than the weight of singing activities in all songs.

Sixth, 30 songs out of 53 Asian folk songs that were contained in eight textbooks were presented with original language lyrics, but only six songs were utilized in academic activities that involved singing the song in original language. Also, The Text, Taesung book publishing, Kumsung publishing company Inc, Mirae-n Culture Group Inc, Bobmunsa and Sungandang simply proposed musical pieces without academic activities, which were not suitable for in-depth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various experience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regional diversity inside the continental classification must be reflected, in addition to world folk songs' continental diversity. The differentiation and diversity of tunes are also necessary. Music teachers must flexibly reconstruct inadequate contents of the textbook and supplement them with thorough lesson plans and learning materials, and must allow even distribution of world folk song academic activities in four areas of singing, instrumental music, creation and listening. Also, teachers must actively associate with other subject fields and construct classes that allow for comprehensiv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that deals with more diverse cultures. To achieve this, opportunitie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at can assist teachers prepare and adopt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must be provided.